



제 22권 제2호(통권 171호)

2021년 2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 란디 포시

## 한우마당 / 44

### 44 화보

2021년, 설맞이 명절 한우장터 오픈

김홍길 회장, 축산업 발전 감사패 수여

### 46 우리한우이야기 \_ 신축년 한우의 해를 말하다

### 54 2020 한우산업 결산 \_ 전국한우협회 정책·사업 추진 사항

## 특집 / 67

### 우리 힘으로 지킨 농민 기본권

### 68 성명서

머슴 채용했더니 주인 쫓아내려다 달미!

본질이 왜곡된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의 자세를 개탄한다

### 70 농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다

### 74 한우농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문 해설

### 78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명소송을 끝내며

### 81 횡성군의 관심과 후속조치 당부

## 한우와 사람 / 83

### 84 현장공감 \_ 송아지 생산성 향상

### 87 신년 기자간담회

“마지막까지 한우농가 보호에 매진”

### 90 2021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

대상에 녹색한우

### 92 맞손

본회-GS리테일, 편의점에서도

한우 사먹는 시대 개막

## 정보마당 / 95

### 96 1월 한우동향분석

### 109 번식문제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115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개념 도입의 필요성

### 118 한우 미경산우의 비육시 사양관리

### 125 백문백답 한우사육

## 소식·알림마당 / 130



해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해 오던 한우 직거래장터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로 변경하여 운영됐다.

2021년 한우의해 설 명절을 맞아 열린 '2021년 설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부위별 한우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했다. 10일까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 전국 농협계통매장, 대형마트 등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특히,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용 쇼핑몰 '한우먹는날'은 한우 선물세트 및 한우고기, 소우족 등 부산물 등을 시중가 대비 20~30% 상시 할인되고 있다.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고 우리 협회 회원농가가 직접 생산한 품질 좋은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해 기업 및 단체 선물 주문으로도 인기다. 우리협회는 명절 선물세트 외에도 한우한마리곰탕 레토르트 제품육음 등 한우고기 판매 영역을 다각화 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설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성료



## 김홍길 회장, 축단협 감사패 받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올해 첫 대표자 회의를 갖고 올해 축산업계가 주력할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큰 화두는 '도축세 부활 움직임'이었다. 충북도는 최근 반복되는 가축질병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일환으로 도축세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들은 도축세 반대로 의견을 모으고 입법 시도가 있을시 강경하게 반대 활동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한편,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 2월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홍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은 "전임 축단협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 권익보호 활동에 현격한 공로를 세워준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홍길 회장은 "추진력 있게 여러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의욕만큼 많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바통을 이어받은 하태식 회장이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牛리한우이야기

# 신축辛丑년 한우의 해를 말하다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이종현

1

## 소띠 해를 말하다

2021년은 한우의 해이다.

신축(辛丑) 년은 흰소(白牛) 띠라고 해서 어느 해보다 신성한 기운을 가지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으며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터운 정직한 사람으로 근면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소처럼 우직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끈질기게 노력하고 추진하는 무거운 입을 갖고 있는 행동과로 볼 수 있다.

띠로 보는 새로운 해(年)의 기준은 입춘이기 때문에 올해는 2월 3일이 엄밀히 따지면 2월 3일이 신축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흰 소(白牛)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신축년 성격의 강점은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성격으로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향이나 감정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소는 부지런함과 인내의 상징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만큼 약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수 있어 일벌레, 일중독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신은 정작 힘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소는 십이지의 동물 중 두 번째 동물로서 방향으로는 북북동, 시간으로는 새벽 1~3시, 달로는 음력 12월에 해당하는 동물이다.

12동물의 띠에다가 갑을(甲乙)은 청색, 병정(丙丁)은 적색, 무기(戊己)는 황색, 경신(庚辛)은 백색, 임계(壬癸)는 흑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축(辛丑)이라는 뜻은 흰 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소띠에 해당하는 출생연도와 색깔로 보면 1949년생은 기축(己丑) 년생 : 황소 띠 1961년생은 신축(辛丑) 년생 : 흰소 띠 1973년생은 계축(癸丑) 년생 : 검정소 띠 1985년생은 을축(乙丑) 년생 : 청우 띠



경북 경주 김유신묘  
십이지호석 축(丑)상  
탑본,  
출처:한국민족문화  
대백과(네이버)

1997년생은 정축(丁丑) 년생 : 붉은소 띠 2009년생은 기축(己丑) 년생 : 황소 띠 2021년생은 신축(辛丑) 년생 : 흰소 띠로 60년만에 같은 흰 소 띠가 되 돌아온다. 같은 소띠라도 황색, 흰색, 검정색, 청색, 적색 등 5가지 색의 소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생은 흰 소 띠라고 하는 것이다.

2

## 농사와 소

소는 우리나라 농경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가축의 의미를 벗어나 마치 한식구(食口)처럼 생각되어 왔다. 농경시대에서 소는 없어서는 안





김홍도(병진년화첩), 출처:국립중앙박물관

되는 소중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운송의 역할도 담당하였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상 금고의 역할까지 하였다.

이처럼 사람 이외는 소가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이었다. 소는 우직하나 성실하고 온순하며 끈질기고 힘이 세지만 사납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러한 소의 속성이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들어 여러 가지 풍속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라고 했으며 우

리나라의 민속에는 특별히 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민속이 농경문화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농사의 주역인 소가 여러 풍속과 깊은 관련을 맺어 온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소를 한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소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짚으로 만든 이불(덕석)을 입혀주고 봄이 오면 외양간을 먼저 깨끗하게 치웠으며 겨울이 오기 전까지 보름마다 청소를 해 주었다.

이슬 묻은 풀은 먹이지 않고, 솔로 털을 빗겨서 신진대사를 도왔으며 먼 길을 갈 때는 짚으로 짠 소 신발을 신겨서 발굽이 닳는 것을 방지했다.

우직하고 순박하여 성급하지 않은 소의 천성은 은근과 끈기, 여유로움을 지닌 우리 민족의 기질과 잘 융화되어 조상들은 소의 성품을 아끼고 사랑해 왔다.

이처럼 소는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로 함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민속학적인 모형이 만들어졌다.

### 3

#### 소와 관련된 풍습

소의 날(丑日)은 입춘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2021년의 입춘(立春)은 2월 3일이기 때문에 매년, 처음 맞이하는 축일을 상축일(上丑日)이며 제주도에서는 상축일을 「첫췌날」(첫소날)이라 하여 이날에는 맷돌질과 방아 찧기, 방망이질을 하면 그 집에는 마소와 돼지 등의 가축이 모두 죽어서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맷돌과 방아는 보통 소막(우사)에 놓아두는데 이것 또한 소막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본 집주인은 우선, 그 소를 살리고자 밖으로 끌어내지만 그 소는 소막에 있는 맷돌과 방아를 먼저 꺼내지 않고서는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버티고 서 있는데 소 임자가 그 소를 억지로 소 밖으로 끄집어 내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방아가 있는 한 소는 다시 불 붙고 있는 소막으로 들어가서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속담에는 “새해날 첫췌날(上丑日)에 밭 아니 간다”라는 말이 있다. 새해가 되어 처음 맞는 첫췌날에 밭을 갈면 그 해 내내 보습(쟁기날)이 부러지는 등 흉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에는 ‘축불관대(丑不冠帶)’라고 해서 관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축일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막우제를 지내야 소를 찾게 된다고 한다.

소 막에 매어둔 소를 도적놈이 와서 억지로 끌어갔다든지 해서 잃어버렸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지방에서는 정월 들어 첫 번째 축일을 소날, 소 돌보는 날, 상축일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맞는 소날은 소의 명절날이다.

그러므로 이날은 소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소를 잘 먹인다. 소날에는 도마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쇠붙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날 연장을 만지면 쟁기의 보습(날)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기침을 한다. 연자방아는 소가 멍에를 메고 돌리는 것





홍천 거리소 모는 소리 시연, 출처:강원도민일보

이므로 자연히 소에게 일을 시키는 결과  
가 되므로 연자방아를 켜지 않았던 풍  
습이 그 외의 방아에 까지 변진 것이다.  
그리고 이날은 곡식을 집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 곡식을 퍼내면 소에게 재앙이 온  
다고 하여 꺼리게 된 것이다.

전남지방의 농가에서는 정초부터 그해  
의 풍년을 염원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소곡(所穀) 하는 의례가 있다. 그중에는  
농가의 역군인 소를 상축일에는 일부러  
시험 경운(試耕) 시키는 일이 있다.

겨우내 집에서 먹였던 소를 밖으로 끌어  
내어 논밭에 나가 쟁기를 씌워 몇 두락  
의 땅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곳  
에서는 '소 방아리 부린다'고 한다. 일반

적으로 농경을 시작하는 길일(吉日)을  
택하여 이 일을 한다.

경남지방에서는 상축일에 도구방아(절  
구질)를 켜면 "제 집 소가 골이 아파  
죽는다"고 한다. 방아를 켜면 자기가  
소머리(頭痛)를 앓는다. 칼질하면 제집소  
가 발에 병이 생기거나 다친다. 부뚜막에  
촛불을 켜놓고 떡국을 먹으면 바람머리  
를 앓지 않는다. 소는 논밭에 끌고 가서  
땅을 가는 일을 시키면 소의 힘이 세어  
지고 좋다는 등의 풍습을 지켜왔다.

보리 할매가 소날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  
초에 축일이 앞에 들수록 그해 소 값이  
비싸다고 한다. 이는 소날에 소를 사면  
좋다는 속신(俗信)이 있기 때문이다.

## 4

#### 소와 열 두 동물의 띠 이야기

아득한 옛날에, 부처님이 못 짐승들에게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나한테 세배하러  
와라. 제일 먼저 오는 짐승에게 1등 상을

주는 것은 물론 다음 11등까지 상을 주  
겠노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못 짐승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소는 힘쓰는 일이라면 몰라도 달  
리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말이나 호랑이 개에게는 물론 심지어 토  
끼나 돼지에게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생  
각하였다.

그래서 소는 자기는 다른 짐승들보다 워낙  
느리니까 일찍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는 다른 짐승들이 다 잠든 그믐날 밤  
에 길을 떠났다.

이때 눈치 빠른 쥐가 이를 알아차리고  
쥔쥔 소의 등에 올라탔다.

드디어 소는 동이 틀 무렵에 부처님이 계  
시는 집 앞에 도착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쥐가 날썰게 한 발  
앞으로 뛰어 내려 소보다 먼저 문안에  
들어가서 넋죽 세배를 하였다.

쥐가 소를 제치고 1등이 되었다.

그래서 소는 2등이 되었고 한 걸음에 천  
릿길을 달린다는 호랑이가 3등이 되었다.

달리기에 자신이 있던 토끼도 도중에 낮  
잠을 자는 바람에 4등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용, 뱀,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차례로 골인했다.

그게 유교황제설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12지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석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모든 동  
물들을 다 불렀는데 열 두 동물만이 하  
직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석가는 동물들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그  
들의 이름을 각 해(년)마다 붙여 주었다.  
쥐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다음에 소  
가 왔다.

그리고 뒤이어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각각 도착하였다.

이것이 석가유래설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오른편에 있는  
지혜의 문을 관장하는 보살이다.

하루는 석가가 대세지보살을 불러 천국  
으로 통하는 12개 문의 수문장을 지상

의 동물 중에서 선정하여 1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세우도록 명했다.

이에 대세지보살은 12동물을 선정하고 그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모두 불러 모았다.

12동물 중 고양이는 모든 동물의 무술 스승이므로 제일 앞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술 실력순으로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돼지, 개를 앉혔다.

이렇게 12동물의 서열을 정한 후 대세지보살은 석가여래에게 훈계를 청하려고 맞이하러 나갔다. 이 때 석가를 기다리던 고양이가 갑자기 뒤가 마려워 참다, 참다 못 참고 뒤를 보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공교롭게도 이 때 석가가 왕립하셨다.

석가가 소집된 동물들을 살펴보니 한 동물이 부족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고양이를 따라 구경 온 생쥐가 쪼르르 달려 나와 석가에게 말했다. 자신은 고양이 친구인데 고양이는 수문장의 일이 힘들고 번거로워서 수문장을 하기 싫다하고 고향으로 돌아

갔노라며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석가는 쥐에게 어쩔 수 없으니 네가 고양이 대신 수문장을 맡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쥐를 포함한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이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양이는 간교한 쥐에게 원한을 품고 쥐를 잡으러 온 세상을 찾아 다녔다.

이때부터 고양이와 쥐는 천적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도교장설이다.

## 5

### 흰소(白牛)에 대하여

2021년을 흰 소띠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흰소는 멸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백우가 길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 흔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흰 소를 잡아 태백산 기슭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옛 법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때는 반드시 먼저 좋은날을 정하고 흰 소를 골라 잘 길러서 제사를 지낼때가 되면 그 소를 잡아 머리를 산천에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 백두(白頭)라는 것은 소의 머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보답하는 예는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되었다(자료출처 : 규원사화-북애)

우의방은 조선초(1399년 4월) 개국공신인 좌정승 조준(趙浚), 우정승 김사형(金士衡)등이 왕명을 받아 소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소 보는 법 등을 편찬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 황우(黃牛), 흑우(黑牛), 청우(靑牛), 백우(白牛),리우(離牛) 등 여러모색의 소 중에서 백우를 설명한 내용이다.

『해설: 흰 소의 머리가 황색(黃色)인 것을 우왕(牛王)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를 기르면 주인이 부귀하고 자손도 훌륭하게 되며 육축(六畜:소 말 양 돼지 닭 개)이 잘 자라고 소의 먹이도 많아지며 2천석의 콩(大豆)이 얻어진다. 우의방-소

의 형상과 모색(毛色)론 중』

예로부터 소는 우리와 함께 살아오면서 농경시대에는 논 밭갈이는 물론 짐을 옮기는데 큰 일꾼으로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재산이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일만하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남겨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버릴것이 없었던 귀중한 보배였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소띠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 해가 되기 바라면서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자료: 아세아문화사  
(1990년)  
고본 응골방외 2종  
(우의방)중



사진: 농사의신,  
출처: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95년 일본)







## 2020년 한우결산

# 2020년 전국한우협회 정책·사업 추진 사항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대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권익대변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과 여성·청년분과위원회 조직화, 농특위 활동과 한우정책연구소 운영을 통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협회전용 사료 확대, 직거래유통망 활성화, 적체된 부산물 판매 촉진, 코로나와 소규모 가정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정간편식(HMR)제품 개발 및 출시 등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민족산업으로의 한우산업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한우산업 정책 활동과 법률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우농가를 위한 정책 마련과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악취방지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퇴비 부숙도 관련 지속적인 대응

전개 등 안정된 한우산업 조성을 위한 정책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도 총 2만두 규모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모금활동, 한우후계장학금 전달, 언론의 부정보도 대응,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및 연말 연시 소비촉진 활동도 전개와 신축년 소의해 대비 등 한우산업은 물론 전후방산업도 함께 상생하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 한우가격 안정과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

- 미경산우 비육 사업으로 선제적 수급조절
- 적체된 부산물 판매 촉진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가정간편식(HMR)제품 개발
- 협회 전용사료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사료 가격 견제기능 확립
- 한우정책연구소 운영을 통한 한우산업 여건 변화 대응
- 다양한 한우산업 정책 활동과 법률 건의 및 요구
- 농어촌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기반 요구

## 미경산우 비육사업 추진

소값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일환으로 19년부터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년은 한우자조금 지원개체 1만두와 자율참여개체 1만두를 목표로 총 2만두에 대한 사업을 늦게나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분석, 소값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사업에 한우농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적체된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 운동과 코로나와 1인 가족 대응 가정간편식 (HMR) 개발·출시

올해도 적체된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우족·꼬리·사골 등 원가판매를 기획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소비행사는 각종 SNS와 보도, 유튜브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어졌으며, 4차에 걸쳐 판매된 실적은 우족 24,424마리분, 사골 9,046마리분, 꼬리 10,678마리분, 잡뼈 1,518마리분 등 총 45,666마리분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가정간편식을 개발해 4개의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으며, 부산물 환산 3,663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둬 협회의 영향력 확대와 한우농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협회 전용사료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사료가격 견제 기능 확립

사료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 농가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 전용사료를 더욱 확대해 '19년 대비 170%가 상승했으며, '20년 12월 말 2897톤(월 기준)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사료를 통해 타사료의 품질과 가격견제 기능을 확실히 하고 저렴한 고품질 사료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우정책연구소 운영을 통한 한우산업 여건 변화 대응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우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협회의 운동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백년대계를 잇는 한우산업의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발굴하고, 한우산업 여건 변화 대응, 그리고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양한 한우산업 정책 활동과 법률 건의 및 요구

생산자단체와 품목조합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가축시장법 법률 개정, 무항생제 인증제 간소화 및 명칭 변경 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건의, 수의사 처방제 개정 관련 일상치료 예외조항 건의, 축산농장통합 자가진단표 도입에 따른 의견 제출, 사육밀도 농가 현장 점검관련 홍보 및 계도위주 운영 요구, 축산법 종모우 선발체제 개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 조치 시행 요구, 퇴비 부숙도 관련 지속적인 대응 전개, 비육우 경영안정제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등 안정된 한우산업 조성을 위한 정책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기반 요구

농특위 활동을 통해 한우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축산소분과를 통해 토양양분관리제 선결조건으로 화학·유박비료 감축과 축산농가 경

영안정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종부문과의 연계와 대기업진출 저지 등도 논의하며 한우산업 안정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거래 유통망 운영 및 공판장 출하시스템 구축 운영

20년 출하실적은 3,041두이며, 시군지부 판매장려금은 19,730천원을 환원하는 등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들의 출하권 보장과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경산우브랜드를 출범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여성·청년분과위원회 조직화 및 참여확대 기반 마련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여성·청년분과위원회를 조직화하고 각 분과위원장 선임과 지역별 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참여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교육과 예산지원 등 조직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연론홍보

11월 1일 한우먹는날 및 연말연시 소비 촉진,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 및 가정간편식 출시, 유럽 쇠고기 수입 관련 한우 안정화 제도 선구축 촉구,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등 수급조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관련 등에 정책 활동에 대하여 농축산업계 전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특히 한우와 관련된 부정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과 같은 소비촉진행사는 주요 방송사와 종합일간지, SNS 및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전략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 한우지도자 및 여성·청년 역량 교육

민족산업인 한우의 가치와 생산자 조직 내 리더의 역할 수행, 그리고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전국적으로 진행하진 못했으나, 지역단위 교육을 3회 진행하며 리더로서의 실천비전을 수립하고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우 후계 장학금 사업 진행

NS홈쇼핑과 한우협회의 협약체결을 통해 한우후계와 미래를 위한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받았으며, 한우협회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 코로나19에 맞춘 온라인 소비촉진행사 진행

‘11월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직거래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진만큼 상황에 맞는 빠른 대응으로 온라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1월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는 영수증 응모 이벤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한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전달했으며, ‘직거래활성화(숯불구이축제)’ 행사는 ‘2020년 송년맞이 온라인 특별할인판매’ 행사로 진행하여 최대 40% 할인을 적용 소비자들이 연말연시 가정에서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 할인을 지원한 ‘한우사랑상품권’ 발행은 발행 2일만에 조기판매가 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한우판매점의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사랑상품권구입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한우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 코로나19 성금 모금 및 집중호우 피해돕기 성금 모금 전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15일간 자발적으로 모금된 금액은 약 2억여원에 달했으며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행사명으로 중앙회, 도지회, 시군지부, 한우농가 등 자율 모금을 진행했으며 약 10여일 동안 성금 2억7천4백여만원과 자조금 재난지역 지원물품액 3억1천6백여만원 등 총 5억9천여만원의 성금품을 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한우를 사랑해준 소비자들과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한우농가들의 결속을 다지는 훈훈한 한 해였습니다.



## 주요 정책활동

### ■ 추진 완료

#### (1) 가축시장법(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 생산자단체와 품목조합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
  - 2020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

#### (2) 축산농장 통합 자가 진단표 도입에 따른 의견 제출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자 정기점검 관련 축산농장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통합자가진단표 도입
- 축단협 및 협회는 도입 반대 입장 전달

#### (3)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개정

- (축산물검사)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농가가 공표되지 않고, 축산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를 개편하여 추진
  - 최종 정량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도축장에서 출고보류
  - 부적합이 확인(잔류기준 초과)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 (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응(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문제점 :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의무화, 환경부 악취방지종합대책(19년 1월) 강행
- 결과 : 한병도 의원실 법안 취소 조치

####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최근 환경 민원이 빠른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축산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에 있는 통합관리대상 업종을 법률로 정하여 관리

하는 것을 입법.

- 대응방안 : 축산관련단체협의회90에서 의원실 방문 및 설득
- 결과 : 입법추진 보류

#### (6) 임신 중인 가축의 구제역백신 접종 관리방안

- 임신기간을 고려한 임신 가축 접종 관리방안
  - (소) 일제 접종(4월, 10월) 시 임신한 소도 백신을 접종함이 원칙 단,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제 접종 예외를 인정하여 별도 접종
  - 임신기간(280~285일)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분만이 임박한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에만 일제 접종 예외를 인정
  - 일제 접종을 하지 않은 임신 소는 그 기간이 지나서 분만 후에 빠짐없이 접종, 차기 일제 접종 시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재접종
  - ※ 농가나 공수의사가 시·군에 신고, 시·군은 백신 접종시까지 별도관리

### ■ 진행중인 정책사안

#### (1) 무항생제 인증제 개정 의견 제출

- 축산물의 인증제와 관련하여서 축산단체에서는 다양한 인증제를 간소화 하여 농가 불편해소, 소비자가 인증제로 인한 오해와 혼란 방지 요구
- 협회는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의 단계적 폐지 검토, 무항생제 인증제의 명칭 변경을 건의 → 2021년 축산법 개정시 논의

#### (2)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건의

- ‘도태명령’에 반대, 부득이 ‘도태명령’ 도입 시 행정명령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일시 사육중단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 (3) 수의사 처방제 개정 건의

- 한우의 경우 거세와 송아지 설사와 같은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현장방문 처방전



발급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화상원격진료, 전화진료 등을 통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 → 2021년 법 개정시 논의

#### (4) 사육밀도 관련

- 건의내용
  - 농가대상 홍보 및 계도 위주 운영
  - 축종별 특성반영한 처분기간 도입 : 1년의 유예기간, 한우 소규모 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 육성, 출하기간을 감안하여 7~8개월의 기간 부여(축종별 시정명령 기간 별도 부여)
  - 번식농가의 송아지 육성·출하기간 감안 처분기간 연장요구, 번식우의 비육전환 시 이력제 등록 후 적정 사육면적 계산시 비육우 면적 적용 요청(미경산우, 경산우 비육전환시 동일 기준 적용)

#### (5) 축산법 종모우 선발체제 개정

- 선호정액 공급 기반 확대
  - 기존 : 종모우 1두당 10만 스트로 생산
  - 개선 : '19년 7월 선호정액 상위 5두: 2만스트로 /1두 추가 생산
  - '21년 1월부터 선호정액 상위 5두에서 15두로 확대
- 종모우 생산 체계(민간, 지자체 참여) 개선 : 법 개정 검토 중

#### (6) 축산환경 현안(퇴비 부숙도 포함) 대응방안

- 환경부 발주 “가축분뇨법 개정 연구용역” 대응활동 지속 전개
- 퇴비사 확충 관련 정책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활동
  - 농식품부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 지침 개정 촉구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조항 반영
    - 제15조 1항(가설건축물) 개정

(가설건축물 퇴비사에 시멘트 바닥, 시멘트 옹벽 설치 허용 등)

- 축산냄새 관련 정책 민원 대응활동 전개
- 국회·지자체 등 법령·조례 제·개정 동향 파악 및 대응

#### (7) 농협법 개정

- 한우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한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 12월 11일 전문개정 이후 한우 농가수는 절반으로 감소
- 조합원 설립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

#### (8) 악취방지법 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1회 냄새기준 초과 시, 강제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도입,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 출입, 토지의 장애물(나무, 흙, 돌 등)등을 변경하거나 제거 가능, 악취저감 설비, 고정식 원격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모든 축산농가 인·허가시 악취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 대응방안
  - 입법예고기간(12.11까지) 지역구 강한 반대의견 표명하였으나, 철회하지 않은 상황, 해당 개정안에 대한 축단협 공동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에게 제출
  - 협회 의견서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

#### (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건의

- 예방백신 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가에 수의사 지정, 예방백신 주사를 하게 하거나 주사과정을 확인하도록 조치, 백신접종 및 혈청검사 비용 가축소유자가 부담하는 조항 신설 반대
- 농가의무 신설 반대 사유
  - 구제역 발생시 조건없이 살처분보상금 20% 감액, 구제역 백신명령 위반시 과태료 행정처분 및 살처분보상금이 감액되는 상황, 과도한 규제

## ■ 기타 정책 건의

### (1) 축산 종사자 교육 관련(코로나 19 대응)

-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교육 유예 또는 핵심 내용 요약하여 홍보교재로 대체 및 교육시간 축소 시행 요구

### (2) 자연재해 대응 방안 개정 요구

- 가축재해보험 문턱을 낮추어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 개체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
  - 암소, 거세 소 등 분리 가입 가능한 기준 마련
  - 현행 정부 지원 50%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요구

### (3)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증액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20년 예산 2015년 대비 85%(10,200백만) 감액
- 개선 요구
  - 예산 증액, 개소당 지원한도 기존대로 유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판매가격 등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평가하도록 요구

### (4)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 추가 신청

- 환급 적용 가능 축산용 기자재 신규 품목 건의 요청
  -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수요조사 실시(3~4월 중),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축산 경영과등 관련 부서로 요청, 5월내 기재부 제출 후 7월 중 품목 확정
- 추진방안 : 건의 품목이 있을 경우 중앙회로 2월말까지 건의, 취합 후 축단협 공동건의 등 추진

### (5) 가축사육관리업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내용

- 가축질병방역관리분야 : 동물진료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청소대행업
- 가축분뇨처리관리분야 : 가축분뇨관리업, 축산환경관리업
- 농장 및 가축사양관리분야 : 가축사양관리업
- 축산시설 및 ICT분야 : 가축시설관리업
- 위생안전분야 : 축산위생안전관리업

#### ○ 대응방안 : 축단협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에 반대의견 제출

### (6) 아일랜드, 프랑스 쇠고기 수입관련 대응

- 배경 : 2006년부터 EU 회원국들이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왔으며, '13년 5월부터 4개국\* 먼저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를 시작
  - ※ 네덜란드, 덴마크(19.7월완료로 수입중), 프랑스, 아일랜드(5단계 진행중)

#### ○ FTA체결 이후 정부대책의 문제

- 환경문제를 빌미로 농가 규제대책만 양산

#### ○ 상대국 농축산업 보호대책

- 유럽농업은 EU보조금 의존없이 수지타산이 어려움
- EU농업보조금: 농가소득보전에 연간 650억달러(약75조4천억원) 사용
- 유럽의 농가 평균소득의 50% 이상을 직불금에 의존

#### ○ 협회 요구사항

- 장기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이 없음
  - ※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삭감(FTA대응 사업)
- 비육우 경영안정제 등 자국산업 보호대책 선행 필요

### (7) 농특위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

#### ○ 도입배경 및 선결조건

- 농특위 축산소분과에서 토양양분관리제 선결조건으로 화학·유박비료 감축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제시



### ○ 연구용역 추진 경과

- 농특위 내 축산 소분과 설치·운영('20. 2.)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20. 5. 20.~'20. 12. 15.)

### ○ 연구용역 주요 내용

-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 적정사육두수관리제 도입
- 축산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 ○ 일정

- 농특위 심의·의결 및 보고
  -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심의·의결(제7차 본위원회)
  -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종부문과의 연계 방안 보고('21년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확정
  -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종부문과의 연계방안 보고서 발간('21년 상반기)

# 우리 힘으로 지킨 농민 기본권

성명서

머슴 채용했더니  
주인 쫓아내려다 달미

1

농민의 기본권을  
지켜낸다

2

한우농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문 해설

3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명소송을 끝내며

4

횡성군의  
관심과 후속조치 당부



## 머슴 채용했더니 주인 쫓아내려다 덜미!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 농협사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제명 무효 확정
- 본문 읽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 농협사료 및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엄경익 조합장을 필두로 한 횡성축협의 횡포에 중지부를 찍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힘없는 농민들이 의기투합하여 농업계 최대 거대조직인 농축협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여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전국한우협회는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 한편,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농민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 본질이 왜곡된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의 자세를 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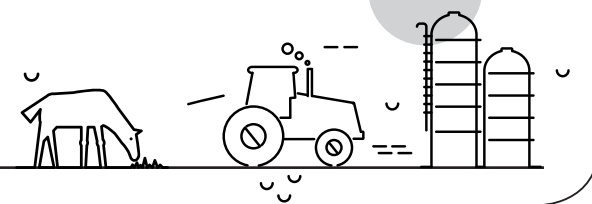
-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킨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하라

2018년 4월 횡성축협은 축협에서 취급하는 사료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20명을 제명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횡성축협 조합장을 제외한 전국의 축협조합장 138명 전원이 사건의 본질인 '조합원의 부당제명'은 파악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접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축협 조합장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장이란 말인가!

농가소득 증대와 권익 옹호라는 축협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조직의 안위와 살림살이에만 치중했다는 것이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시종보다 오히려 더 비싼 농협 경제사업 문제는 이제 식상하다 못해 신물이 날 지경이다. 농가 이익은 불문하고 조합원이면 무조건 계통구매사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한심한 생각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갑질하는 행태는 평소 농민 조합원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축협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하는 한우협동조합이 왜 탄생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축협에 위협되는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싹을 자르려는 잘못된 기득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같은 조직, 같은 축협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옹호한 지금의 행동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지역 농민 조합원들의 대표로 선출됐음에도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 또한 사실을 왜곡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끝까지 농민 조합원들을 무시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금 농협 적폐청산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하길 바란다.





# 1

## 우리 힘으로 농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다

농협사료 미사용 이유로 횡성축협이 조합원 20명 제명,  
대법원 재판에서 제명은 무효 최종 판결

■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1 사필귀정 事必歸正,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농협사료와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최종 판결을 통해 한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힘없는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다윗)가 의기투합하여 농업계 최대 조직인 농·축협(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20명의 제명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직후부터, 우리 협회(김홍길 회장)는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이 횡성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2019년 가을부터 진행된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은 물론 3심(대법원)까지 고문 변호사(조성호·김태욱 변호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시켰으며, 한우정책연구소(계재철 연구소장)는 공판에 필요한 각종 근거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원고(횡성축협)측 주장을 효

과적으로 논파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는 2020년 9월 9일,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20명에 대한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횡성축협의 제명 조치가 절차적 하자는 물론 심각한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다(2심 판결 핵심 내용은 아래 이어지는 해설을 참고). 횡성축협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후 3심 재판 절차가 계속됐다.

우리 협회의 총력 대응은 3심(대법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홍길 회장, 부회장, 도지회장, 이사, 감사, 시군지부장 명의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한농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도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 협회와 한우농가들에 힘을 보태주었다.

이에 대한 원고(횡성축협)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전국 139명 축협장중에서 137명이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축협 조합장들이 사건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횡성축협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여 탄원서를 서명·제출한 이번 행위는 개탄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침내 대법원이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고 2021년 1월 14일 최종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임)함으로써, 힘겨웠던 재판 절차는 1년 5개월만에 마무리되었다.

## 2 새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지니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명할 수 없다는 기준이 새로 확립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협회 OEM사료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축협으로부터 제명될 걱정과 우려가 해소되는 등 축산업과 농업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농민 기본권(선택권) 보호’에 있다. 농협법은 조합간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조직 안위만을 최우선시했던 횡성축협과 이에 동조한 축협 조합장들의 행태에 농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농민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보호됐다는 점과 농축협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경제사업 이용 강제 등 축협의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농협 적폐청산운동을 통한 ‘비정상상의 정상화’와 농민 주체 의식을 강조해 온 우리 협회가,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거대한 골리앗(횡성축협)의 힘에 눌린 부당한 처사를 논리적·합리적으로 바로잡은 역사적 사건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 3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건 진행 경과

■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패소(‘19.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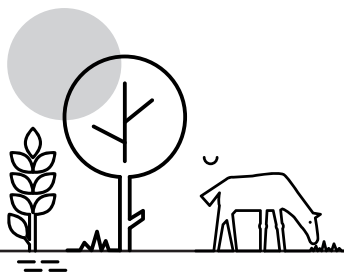
- 피고(횡성축산업협동조합)의 원고(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사유
  -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 (횡성축협) 조합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 미이행
  - (횡성축협) 조합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

■ (2심) 서울고등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0.9.9.)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대응
  - 한우정책연구소에서 횡성축협 배합사료 및 한우유통 실태, 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이용실태, 젓소·돼지·닭 사육 횡성축협 조합원 사료구매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
  - 전국한우협회 고문변호사 재판(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참여

■ (3심) 대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1.1.14.)

- 피고(횡성축협) 탄원서 제출(3건)
  - 횡성축협 조합원, 전국 축협장(전체 축협), 횡성축협 임원(조합장·이사·감사)
- 원고(제명된 조합원) 탄원서 제출(5건)
  - 전국한우협회 회장, 시도 지회장·시군 지부장, 축단협회장, 한농연회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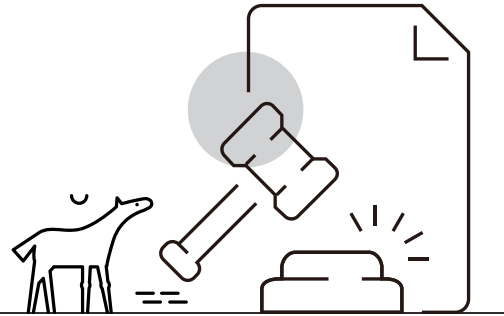




## 2

# 한우농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문 해설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결 핵심 내용('20.9.9.)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결문 핵심 내용을 절차적 하자(1개)와 실체적 하자(10개)로 나눠 해설합니다. 2심 판결은 3심(대법원) 판결에 100% 반영되어 이번 재판에서 한우농가들이 승소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 해설 자료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판결 내용의 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절차적 하자

원고(횡성축협에서 제명됐던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20명)가 피고(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총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켰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제명 절차의 절차적 하자(잘못)가 있다.

### 실체적 하자

원고들에 대한 이 사전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농협법 및 피고의 정관이 규정한 조합원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조합의 제명 결의에는 아래와 같이 10

개의 실체적 하자(잘못)가 있다.

- ✓ 피고(횡성축협)는 농협법에 따른 지역축산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로부터 제명될 경우 원고가 피고가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의 성격(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 피고는 '횡성축협한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로 등록하였으나 횡성군은 「횡성군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9.10.21. 제정·시행하여 횡성군 조례가 정의하는 '횡성한우'에 피고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만이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한 각 생산자단체가 판매하는 한우 또한 위 조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횡성한우'에 속할 수 있다고 보인다.
- ✓ 피고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사업 및 서브브랜드 사업을 이행하고자 원고(20명)중 김OO 외 5인은 피고와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행약정은 한우의 사육 및 출하, 출하대금의 정산, 선급금의 지급·사용·상환·지도·감독, 계약기간, 해지 및 위약금 징수에 관하여 정하여 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약정을 해지하고(제9조) 위약금을 징수하며(10조) 재약정을 제한하는 등(제11조)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원고들이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자체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사육 및 출하 활동이 피고의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인 원고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축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횡성한우협동조합과 피고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윤복만을 피고의 수출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라는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11.22. 횡성한우협동조합이 국내에서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온 점 등의 이유로 윤복만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 ‘횡성한우’ 명칭이 포함된 59건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등 횡성에 다수의 브랜드가 난립하여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 중 일부가 브랜드 통합 주장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 중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은 원고들이 피고의 ‘사료, 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축산물브랜드 현지실사 요령집(갑 제15, 16호증)에서는 ‘사료통일’ 항목에서 ‘사육단계별 동일 사료 이용’(2018년도) 또는 ‘브랜드 사료 생산 공급 실적’(2019년도)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달리하면서도, 사료를 생산한 공장이 다르더라도 사료성분 분석 결과 특정 성분의 함량이 동일할 경우 동일 사료로 인정하거나(2018년도) 사육단계 사료명이 같으면 감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2019년도). 또한,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

으로 강제적으로 피고로부터만 사료를 구입하여 한우를 사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그러한 조합원들을 제명하고자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7년을 기준으로 원고 김봉희는 구매사업 6,970,960원, 마트사업 515,950원, 수신사업 8,515,536원, 판매사업 16,733,033원 합계32,735,479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피고 조합원이 조합 사업 이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배당금) 203,851원을, 원고 김근배는 구매사업 9,733,110원, 마트사업 1,791,560원, 수신사업 3,795,419원, 카드사업 10,719,855원 합계26,039,944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95,052원을, 원고 조영환은 구매사업 1,439,222원, 마트사업 31,430원, 수신사업 35,036원 합계 1,505,688원의 조합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4,789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한우 사료를 구입·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를 통하여 한우를 출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협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제명사유로서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또는 ‘2년 이상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의 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횡성한우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쇠고기 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된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들어 이 사건 제명 결의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 결의의 결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각종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 중 ‘사업준비금’ 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 3

##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명소송을 끝내며

■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조성호 이사장(변호사)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횡성축협')의 조합원 20명은 축협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료공동구매 및 기타 한우농가로서 협력을 위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횡성축협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가입은 횡성축협의 경쟁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횡성축협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들 20명을 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명된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들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제명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심에서는 횡성축협의 제명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이후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에서는 횡성축협의 제명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인 항소심 재판부터 제명 조합원들의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입장에서 1심의 판결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높은 무게를 두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1심의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제시한 판례가 축협이나 농협에 관한 판례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관한 판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2심 재판부를 설득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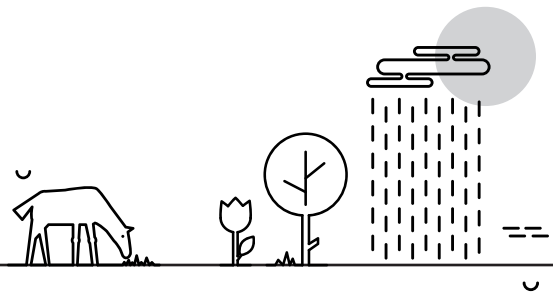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업계에서 농협이나 축협은 단순한 조합 이상이다. 농촌에서 농협이나 축협의 지원과 도움 없이 농업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정부의 많은 정책자금의 집행이나 지원이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공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농협이나 축협을 일반 조합으로 보고 조합원의 지위 및 제명사유 등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실제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농협이나 축협의 조합원 제명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횡성축협조합원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제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제명절차의 문제점, 횡성축협 주장의 부당성 등 여러 논점이 부각되어 2심 재판 중반이후부터는 재판부의 입장이 1심 재판부의 결과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2심 결과가 나왔다. 이에 횡성축협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3심)를 제기하였고 각 축협조합장들 및 횡성축협 조합원들의 단체서명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폈다. 이에 제명 조합원들은 전국 한우협동조합장들 및 농업계 인사들의 단체서명으로 이에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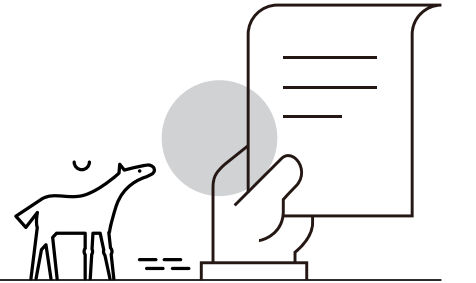
이에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농업을 전공하고 농업에 전문화를 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정말 뿌듯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농업에 관한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절대적이다. 1심 재판부가 농협이나 축협을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판사들은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실제 이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에게 농협이나 축협은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하나로마트가 결합되어 있는 회사의 다름 아니다. 농업·농촌·농민과 농협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판사라고 다를 것 없다. 농업계에서 한참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태반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 중장년층들은 고향이 농촌인 경우가 많고 농촌과 농업에 대해 막연하나마 어느 정도의 인식과 애정이 있으나 이보다 어린 세대의 경우 농촌은 다른 나라 이야기 일 뿐이고 농촌이나 농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로 농협이나 축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농촌에서 자유롭게 조합 등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농민은 수익이 증대되고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농업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고 확산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올바른 인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계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 4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등 갑질에 경종! 횡성군의 관심과 후속조치 당부



중앙회는 한우 농가권익을 지켜낸 금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소송」의 결과와 그 의미를 전파하고, 지자체 및 의회 등에 한우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 강원도 횡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횡성한우협동조합 농가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전국의 농축협조합장들이 이번 사건을 반드시 알고, 앞으로도 유념해야 할 중요 사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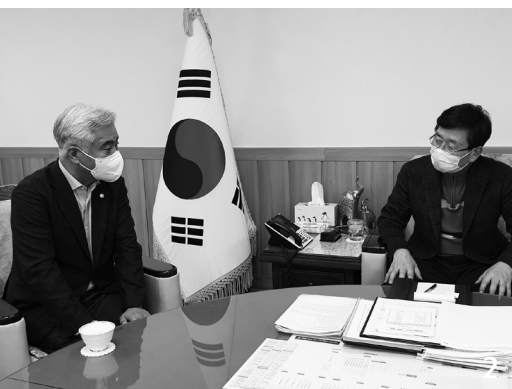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우협동조합(농가)은 경쟁대상이므로 제명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탄원에 축협조합장 전원이 서명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핵심은 ‘농민의 기본권(선택권) 보호’입니다. 농협법에서는 조합 간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과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조직안위만을 우선시한 축협조합장들의 행태가 농민들이 분개하는 이유입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농민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보호됐다는 점과 농축협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경제사업 이용 강제 등 축협의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적폐청산운동 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농민 주체의식을 강조해 왔던 우리

- 1 횡성한우협동조합 농민과의 간담회
- 2 권순근 횡성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홍길 회장
- 3 제명 농가들을 격려하는 김홍길 회장



협회가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거대 힘에 눌린 부당한 처사를 논리적, 합리적으로 바로잡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후, 연이어 가진 장신상 횡성군수와 권순근 횡성군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두 인물 모두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홍길 회장은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 중 횡성한우는 최고로 꼽히는데,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도 1등이다. 횡성한우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군수와 의장에게 한우농가들의 짓밟힌 권리를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첫째는 생산농가다. 조합과 조합장은 후순위 문제다. 횡성한우축제 당시에도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농가들이 주인이므로 농가만 보고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농민이 최우선 고려대상이자 옳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협이 한우농가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횡성한우 브랜드를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한우협회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익보호 및 신장 활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 한우와 사람

- 1 현장공감  
송아지 생산성 향상
- 2 신년 기자간담회  
마지막까지 한우농가 보호에 매진
- 3 우수한우브랜드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4 맞손  
본회-GS리테일,  
편의점에서도 한우 사먹는 시대 개막



# 송아지 생산성 향상 방안

■ 부제역연구소장 이경진(수의사)



자료출처 : 한우기술공감밴드  
강원도 홍천 K 목장 생시체중 51kg



좌측 BCS 4 우측 BCS 3



안녕하십니까?  
수의사 이경진입니다.  
소띠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동안 지면을 통하  
여 인사드릴수 있게되  
어 영광입니다.

## 도체중 관리

현재 한우의 평균 도체중은 450kg 입니  
다. 모든 농가의 바람은 올리고~ 올리고~  
입니다.

생시 체중 1kg 은 사양관리에 따라서 도  
체중 9~12kg 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생시 체중을 올릴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송아지 생체중이 30kg 이라면 분만 두  
달반전에 체중 70%가 성장합니다.

즉 75일 사이에 약 20kg이 폭풍 성장을  
하는겁니다. 어미는 하루에 단백질 함량  
12~14%의 사료 약 3~4kg 을 섭취한 후  
절반은 생명유지에 쓰이고 절반은 생산  
에 쓰여 태아를 성장시켜 약 27kg 의 송  
아지를 생산하여 평균 도체중 450kg나  
타내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아지 생시체중을 10kg 향상시키면 도  
체중 평균 100kg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돌아먹이기를 권장하면 많은 농가에  
서는 만삭우가 여기저기에 있어 곤란하  
다는 반응입니다. 수정 후 임신 감정 후  
소를 분리하기 이틀전부터 향수나 스킨  
을 분사기 물통에 10ml를 희석하여 하  
루 두번 코 주변에 뿌려주고 합사 후에  
도 하루 이틀 더 뿌려주면 서열 싸움 없  
이 합사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우방에서  
동시에 분만할 경우 분만관리, 송아지 설  
사, 분만 후 발정관찰을 한 우방에서 모  
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돌아먹이기의 사료량은 생시체중 40kg  
을 목표로 하였을때 일일 약 130g의 체

중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 13%의 사료  
를 기준으로 하루 2kg 이 정량입니다만  
한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사료  
가 1kg 더 필요합니다.

모든 소를 돌아먹이기를 하는것은 아닙  
니다. 어미가 출하 전 비육중이라면 임신  
7개월일때의 몸상태보다 컨디션 스코어  
가 5점만점에 4이상이라면 난산과 복강  
지방축적으로 인한 자궁 발달장애로 저  
체중 송아지 출산을 고려하여 돌아먹이  
기 사료량을 줄여야 합니다.

돌아먹이기 사료량은 조절하더라도 칼슘  
과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은 평상 돌아먹



이는 만삭우보다 더 주는것이 비만우의 태아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아 먹이기 기간동안에는 태아의 골격 발달과 초유의 항체가 상승 및 분만 후 최고의 산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선 세포의 발달 발정 재귀를 위하여 비타민 미네랄 칼슘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아먹이기 구간의 비타민 미네랄 공급은 분만에 관한 생식기 발달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켜 분만 시 경관 확장부족 어미의 분만 진통부족등의 난산 요인의 발생을 줄이고 산도 확장 외음부 이완 등 분만 경과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과태아로 인한 난산은 돈아먹이기 구간에 비타민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 부족이 원인입니다. 분만 직전의 산도는 분만시기에 적합한 호르몬이 충족되어져 경관이 확장되고 1-2파수의 산도확장과 산도 윤회작용이 이루어 졌을때 순산을 합니다. 태아가 질 입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과 외음부를 소독한 후 주먹 하나를 산도내에 20cm 정도 넣었다가 주먹을 쥐고 5회 정도 넣었다 빼줍니다. 잠시 후 두 주먹을 쥐고 5회 반복하여 최

대로 질 입구를 확장시킨 후 송아지를 건인합니다.



### 난산시 송아지 분반기 이용

분만 전 외음부 확장방법은 한번 확장해 놓으면 약 2일간 확장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어미가 양수로 산도를 확장하고 난산을 유발할 확률을 낮춰줍니다.

돈아먹이기와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 공급은 한우의 생산성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절한 돈아먹이기는 송아지의 면역능력을 높여주고 어미의 발정재귀를 향상시키며 산유량증가로 이유체중을 증가시키며 골격 발달로 송아지 값을 최고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소피해를 맞이하여 한우농가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 마지막까지 한우농가 보호에 매진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소송 승소는  
농민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판례 남겨

###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 스케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농민을 위해 일한 6년 후회 없어”

우리 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으로 미경산 한우 비육 등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정착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개편과 비육우 경영안정제도 도입 등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탄소중립과 연계한 환경문제 타파를 위한 노력과 농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언론의 관심 등을 주문했다.

## “횡성축협 탄원서 서명한 축협조합장, 한우농가(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김홍길 회장은 이번 횡성축협 승소 건에 대해 신년간담회의 대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이번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사료 및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김홍길 회장은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용에 대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농민들을 위해 생겨난 조직이 농민 소득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갑질 형태는 평소 농민 조합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면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한우연구소 계재철 소장은 “단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이는 횡성축협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농축협의 문제이며 대법원이 판결은 대한민국 농업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 소회 “한우농가 위해 뒀 6년 후회없다”

“한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농가와 연관된 전후방산업과의 관계였다. 하지만 한우의 전후방산업에 못이 박히고 못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농가 소득을 올리고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전문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김홍길 회장

김홍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료가격을 올려주면 업체들은 좋아하지만 농가들은 부담되고, 정부와 농협의 정책에 맞추면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며 “예를 들면 퇴비 부숙도 문제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농가들이 압박을 받고 불편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또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후회 없이 활동했다고 자부한다.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농가들의 생산과 가격안정, 한우산업 정책에 몰두했다”며 농가들의 소득 안정 등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 브리핑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속제 생산자단체 역할 천명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과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우사육두수가 320만두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한우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연간 도축두수 추이 및 농가들의 보유분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와 재작년 도축두수를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농가들이 많은 한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들이 보유한 소가 시장에 홍수 출하되면 견잡을 수 없는 가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김홍길 회장은 “잠재적 공급량이 많다는 것은 가격 하락 위협의 시기에 언제든지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시모, '녹색한우' 등 39개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

소시모는 최근 2020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우 24개, 돼지 14개, 계란 1개 등 총 39개 축산물 브랜드를  
2021년 인증 브랜드로 선정했다.

## 잠깐! 한우부문 대상 '녹색한우'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남지역 8개 축협(강진완도, 나주, 목포무안신안, 영광, 영암, 장성, 해남진도, 화순)과  
12개 시군이 공동출자해 2008년 출범한 공동브랜드다.

현재 3,600여 한우사육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2만 2,000마리의  
한우를 사육중이다. 2016년부터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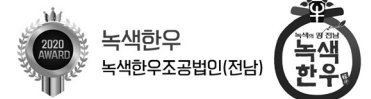


지난 1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식에서는 본회 김홍길 회장을 비롯한 이개호 국해농해수위원장, 하태식 축단협 회장 등의 격려와 축사가 이어졌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중 한우 브랜드 부문은 강원한우, 경주천년한우, 녹색한우, 늘푸름 흥천한우, 대관령한우, 명실상감한우, 물맑은 양평한우, 민속친한우, 봉화한약우, 안성 한우, 의성마늘소, 장수한우, 지리산순한한우, 참예우, 참품한우, 천하1품, 청풍명월한우, 총채보리한우, 치악산한우, 토바우, 팔공상강한우, 함평천지한우, 횡성축협한우, G한우 등 24개 경영체가 선정됐다.

그중 녹색한우가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춘환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12년 연속 우수축산물 인증 받고,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한우명품브랜드로 인정받은 쾌거를 이룬 것은 모두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 덕분”이라며 “녹색한우 임직원은 고품격 친환경 한우고기로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 대통령상



###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장려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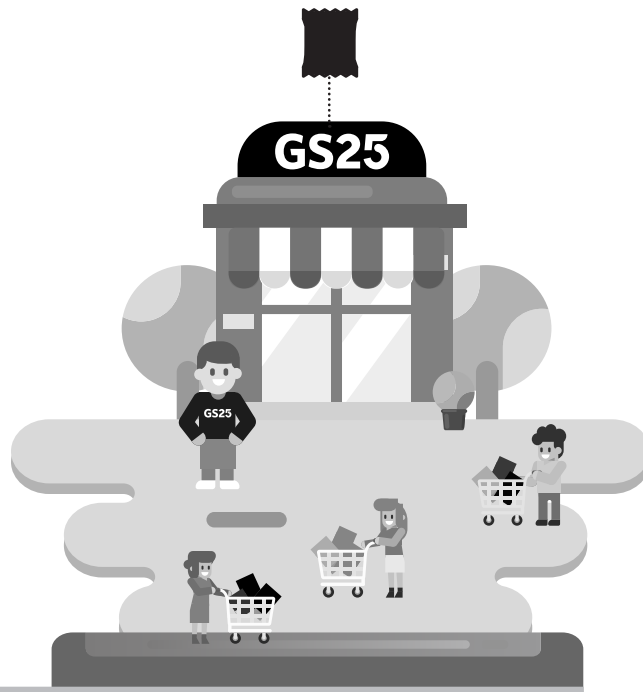
### 친환경 인증 농협중앙회장상



### 명품 브랜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인증 3회 이상 대상 수상 브랜드



# 편의점에서도 한우 사먹는 시대 개막 본회-GS리테일 업무협약



한우협회-GS리테일 협력  
‘한우양곰탕’ 출시 시작  
신선·가공식품 개발 확대  
한우 소비층 저변 확대 기회 될 것



1인 가구 증가와 간편 조리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 한우 부위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조리 과정이 복잡한 양·우족·사골 등 한우 부산물 소비는 지속 감소 추세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영업까지 제한되면서 한우 부위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자 우리 협회는 GS리테일과 손을 맞고 한우 부산물로 개발한 상품을 선보이며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GS리테일과 합작해 선보이는 상품은 ‘한우먹는날 양곰탕’이다. 한우 부산물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한우 양(소 위)과 한우 사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양곰탕이 첫 메뉴로 개발됐다.

우리 협회와 GS리테일은 지난 1월 13일 제2축산회관에서 한우 신선·가공식품 개발과 유통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한우고기 구매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에서의 직접 판매가 대부분이었다. 또 쇠고기 가공식품과 간편식은 저가 수입 쇠고기 등으로 만든 제품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한우고기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상호 협력해 한우 유통의 다각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은 “가공식품과 가정 간편식의 경우 저가의 수입 쇠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삶 가까이에서 한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GS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한우를 보다 쉽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한우 양곰탕 외에도 한우 관련 가공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정육 제품 등이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표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 등을 통해 한우를 소비자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한우의 프리미엄 식품이라는 포지셔닝이 전통적으로 유통됐던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플랫폼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로 작용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에서도 쉽게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한우 소비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라인업의 한우 상품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협약 체결 후 양측은 합작품인 ‘한우먹는날 한우양곰탕’을 22일 출시하고 6500곳의 GS편의점에서 4만개 한정으로 1+1행사를 진행했다. 양측은 또 한우양곰탕을 시작으로 한우육포와 한우육회 등 신선가공식품, 정육 등으로 제품 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GS리테일 본부장(전무)은 “국내 축산 농가와의 협업을 고심해 왔는데



축산농가 대표인 한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양측이 함께 좋은 제품을 개발해 전국 1만5000여개의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급하는 등 유통 분야에서 노력하겠다. 이번 협약이 한우의 HMR 시장 확대 등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길 회장은 “GS25는 국내 최고의 토종 브랜드로 한우 생산자 대표인 한우협회와 함께하는 협업은 매우 의미가 크다. 양측이 함께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며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들의 삶의 지근거리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되어 한

우고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GS리테일은 생산자와의 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2년에는 업계 최초로 경북 안동에 친환경 한우 지정 목장(민속한우)을 조성하고 GS리테일이 마련한 상생펀드로 송아지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파트너사의 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동반성장 활동을 해왔다. 1+등급 이상의 고품질 한우는 GS더프레시에서 ‘우월한우’ 브랜드로 2014년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한우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GS리테일 측의 설명이다.

# 정보 마당

1

한우정책연구소  
1월 한우동향분석

2

컨설팅  
번식문제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기고 ①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개념 도입의 필요성

4

기고 ②  
한우 미경산우의 비육시 사양관리

5

백문백답  
한우사육



# 한우 동향분석



■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김한중 수석연구원(02-525-1053)으로 연락주시시오.

## 요약

### (한우사육) 2021년 1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가임암소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화 진행 중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연령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등급판정) 1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2%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 : 23.3%, 1+ : 26.7%, 1 : 25.2%

### (도매 및 산지가격) 12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상승·전월대비 하락, 큰암소·송아지 산지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체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전월 대비 큰소·송아지 가격 하락

### (정책판매) 전년동기 대비 1~12월 판매량 모두 증가

- 1~12월 정책 누적판매량은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쇠고기 수입) 1~1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큰 폭 증가
-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에서 증가
- \* 쇠고기 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과 단체급식 수요 감소 때문

###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및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책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 01 한우 사육동향

### 2021년 1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한우 사육두수는 318만 9천두로 전년동월(302만두)보다 5.6%(16만 9천두) 증가, 전월(320만두) 대비 0.3%(1만 1천두)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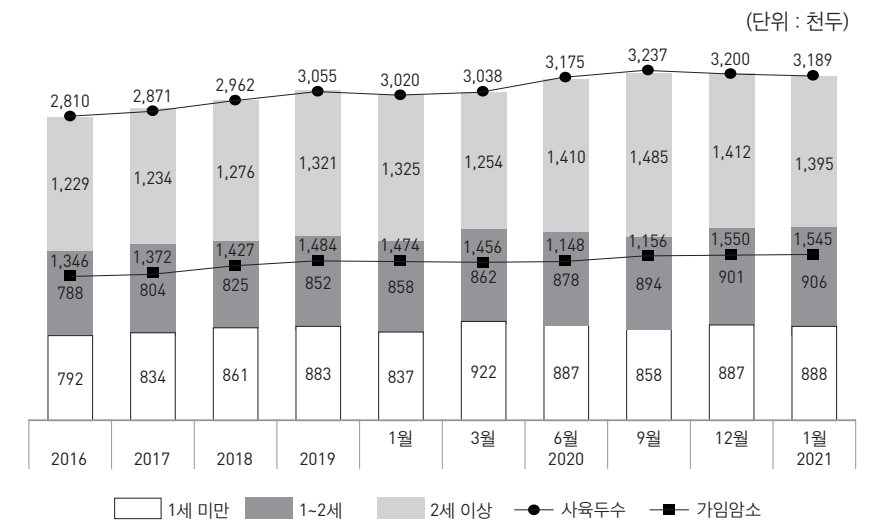
- 전월대비 감소는 1세 미만과 1~2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임암소를 비롯한 1세미만과 2세 이상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

○ 가임암소는 154만 5천두로 전년동월(147만 4천두) 대비 4.8%(7만 1천두)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0.3%(5천두)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는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월 대비 각각 6.1%(5만 1천두), 5.6%(4만 8천두), 5.3%(7만두) 증가

- 전월 대비 1세 미만과 1~2세는 각각 0.1%(1천두), 0.6%(5천두) 증가한 반면 2세 이상은 1.2%(1만 7천두) 감소

<그림 1>  
가임암소 및 연령별  
두수 현황



- 농장수는 88,933호로 전년동월(89,497호) 대비 0.6%(564호) 감소, 전월(88,879호) 대비 0.06%(54호) 증가해 농장 감소세가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5.9두로 전년동월(33.7두) 대비 6.5%(2.2두) 증가, 전월(36.0두) 대비 0.4%(0.1두) 감소

<표 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 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 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1월(A)	89,497	3,020	1,474	52	837	858	1,325	33.7
	3월	89,411	3,038	1,456	186	922	862	1,254	34.0
	6월	89,155	3,175	1,480	330	887	878	1,410	35.6
	9월	88,893	3,237	1,546	249	858	894	1,485	36.4
	12월(B)	88,879	3,200	1,550	51	887	901	1,412	36.0
2021	1월(C)	88,933	3,189	1,545	35	888	906	1,395	35.9
증감율	전년동월(C/A)	△0.6	5.6	4.8	△32.7	6.1	5.6	5.3	6.5
	전월(C/B)	0.06	△0.3	△0.3	△30.8	0.1	0.6	△1.2	△0.3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3분기까지 분기별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그 외 월별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3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20년 1~12월, 2021년 1월은 이력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 당월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0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1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7,612두로 전월(55,435두) 대비 22%(12,177두) 증가, 전년동월(76,508두) 대비 11.6%(8,896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3.4%, 수소 1.1%, 거세우 55.5%
  - \* 전월대비 : 암소 0.8%p↑, 수소 변동 無, 거세우 0.8%p↓, 거세율 0.1%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765,297	341,122	10,757	413,418	97.5
(‘19.1.~12월)	(100.0)	(44.6)	(1.4)	(54.0)	
금년누계	762,749	347,083	9,881	405,785	97.6
(‘20.1.~12월)	(100.0)	(45.5)	(1.3)	(53.2)	
전년동월	76,508	32,115	826	43,567	98.1
(‘19.12월)	(100.0)	(42.0)	(1.1)	(56.9)	
전월(11월)	55,435	23,596	626	31,213	98.0
	(100.0)	(42.6)	(1.1)	(56.3)	
당월(12월)	67,612	29,366	741	37,505	98.1
	(100.0)	(43.4)	(1.1)	(55.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12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3.3%, 1+등급 26.7%, 1등급 25.2%

- 12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2%, 1++등급 23.3%, 1+등급 26.7%, 1등급 25.2%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0%) 대비 0.2%p↑, 1++ 등급은 0.1%p↑, 1+등급은 0.5%p↑, 1등급은 0.3%p↓

- 전년동월(75.0%)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변동 無, 1++등급은 0.3%p↓, 1+등급은 2.6%p↑, 1등급은 2.1%p↓
- 전년누계(74.0%)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0.1%p↑, 1++등급은 6.8%p↑, 1+등급은 2.8%p↓, 1등급은 3.8%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12월(A)	76,508	23.6	24.1	27.3	75.0	18.0	6.8	22.4	49.9	27.4	0.2
	1~12월(B)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11월(C)	55,435	23.2	26.2	25.5	75.0	17.6	7.2	22.8	51.7	25.2	0.3
	12월(D)	67,612	23.3	26.7	25.2	75.2	17.3	7.2	22.0	51.3	26.5	0.2
	1~12월(E)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전월대비(D-C)		12,177	0.1	0.5	△0.3	0.2	△0.3	0.0	△0.8	△0.4	1.3	△0.1
전년동월대비(D-A)		△8,896	△0.3	2.6	△2.1	0.2	△0.7	0.4	△0.4	1.4	△0.9	0.0
전년누계대비(E-B)		△2,548	6.8	△2.8	△3.8	0.1	△0.4	0.3	4.3	2.3	△6.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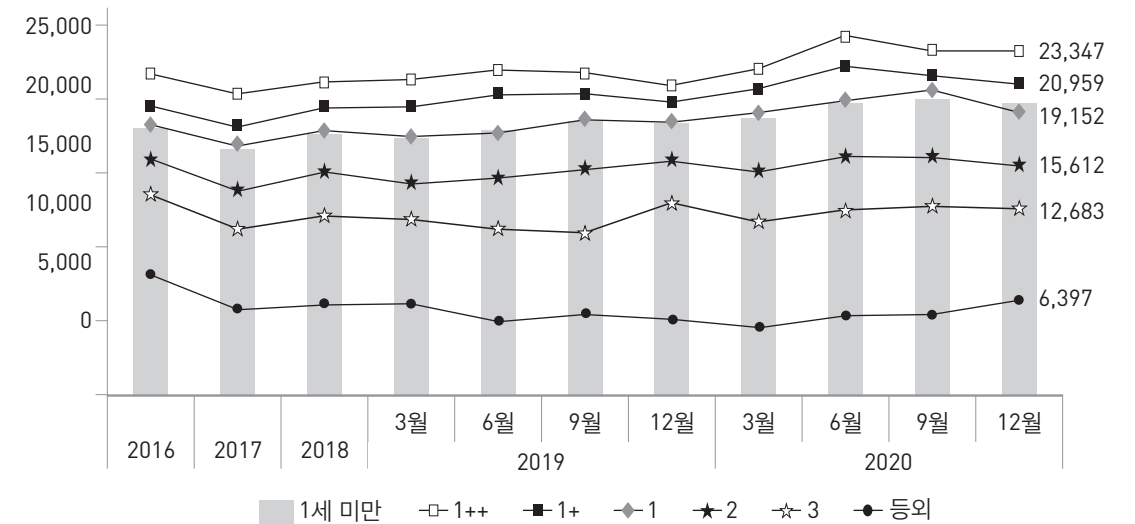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0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12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 12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9,152원/kg)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로 전년 동월 (18,444원/kg) 대비 3.8%(708원/kg) 상승, 전월(19,862원/kg) 대비 3.6%(710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동월(18,506원/kg) 대비 6.1%(1,138원/kg) 상승, 전월(19,992원/kg) 대비 1.7%(348원/kg) 하락

<그림 2>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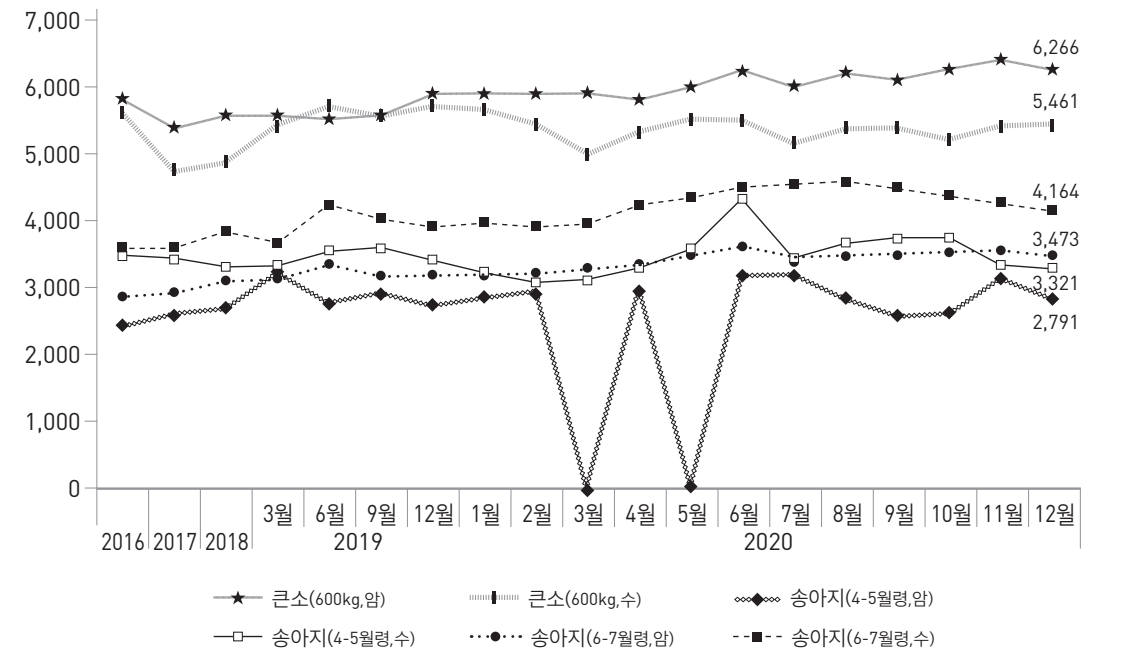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9	3월	21,314	19,650	17,338	14,354	11,856	6,269	17,513
	6월	21,955	20,230	17,742	14,646	11,060	4,857	17,936
	9월	21,779	20,370	18,834	15,322	10,915	5,400	18,610
	12월(A)	20,901	19,685	18,444	15,790	13,024	5,107	18,506
	평균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3월	22,036	20,629	19,022	15,210	11,829	4,757	18,662
	6월	24,101	21,984	19,948	16,061	12,440	5,571	19,832
	9월	23,307	21,430	20,561	16,245	12,672	5,361	20,216
	11월(B)	23,103	20,998	19,862	16,673	13,547	5,534	19,992
	12월(C)	23,347	20,959	19,152	15,612	12,683	6,397	19,644
증감율	전년동월(C/A)	11.7	6.5	3.8	△1.1	△2.6	25.3	6.1
	전월(C/B)	1.1	△0.2	△3.6	△6.4	△6.4	15.6	△1.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12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전월대비 큰소·송아지 가격 하락

- 12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266천원으로 전년동월(5,890천원) 대비 6.4%(376천원) 상승, 전월(6,430천원) 대비 2.6%(164천원) 하락
  - 반면, 수소의 경우 5,461천원으로 전년동월(5,727천원) 대비 4.6%(266천원) 하락, 전월(5,429천원) 대비 0.6%(32천원) 상승
- 12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473천원으로 전년동월 (3,224천원) 대비 7.7%(249천원) 상승, 전월(3,552천원) 대비 2.2%(79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164천원으로 전년동월(3,901천원) 대비 6.7%(263천원) 상승한 반면 전월(4,286천원) 대비 2.8%(122천원) 하락

<그림 3>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 2020년 큰소(600kg) 산지 평균가격은 암소의 경우 6,114천원으로 전년평균 (5,646천원) 대비 8.3%(468천원) 상승, 수소의 경우 5,446천원으로 전년평균 (5,476천원) 대비 0.5%(30천원) 하락
  - 송아지(6~7개월령) 평균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435천원으로 전년 평균 (3,212천원) 대비 6.9%(223천원) 상승, 수송아지의 경우 4,295천원으로 전년평균 (3,930천원) 대비 9.3%(365천원) 상승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3월	5,619	5,495	3,290	3,307	3,149	3,684
	6월	5,558	5,685	2,771	3,562	3,362	4,219
	9월	5,589	5,556	2,941	3,570	3,170	4,031
	12월(A)	5,890	5,727	2,733	3,412	3,224	3,901
	평균(B)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3월	5,943	4,983	-	3,132	3,299	3,960
	6월	6,255	5,504	3,189	4,393	3,610	4,505
	9월	6,101	5,420	2,571	3,733	3,481	4,510
	11월(C)	6,430	5,429	3,180	3,348	3,552	4,286
	12월(D)	6,266	5,461	2,792	3,321	3,473	4,164
	평균(E)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증감율	전년동월(D/A)	6.4	△4.6	2.2	△2.7	7.7	6.7
	전월(D/C)	△2.6	0.6	△12.2	△0.8	△2.2	△2.8
	전년 평균(E/B)	8.3	△0.5	9.7	9.3	6.9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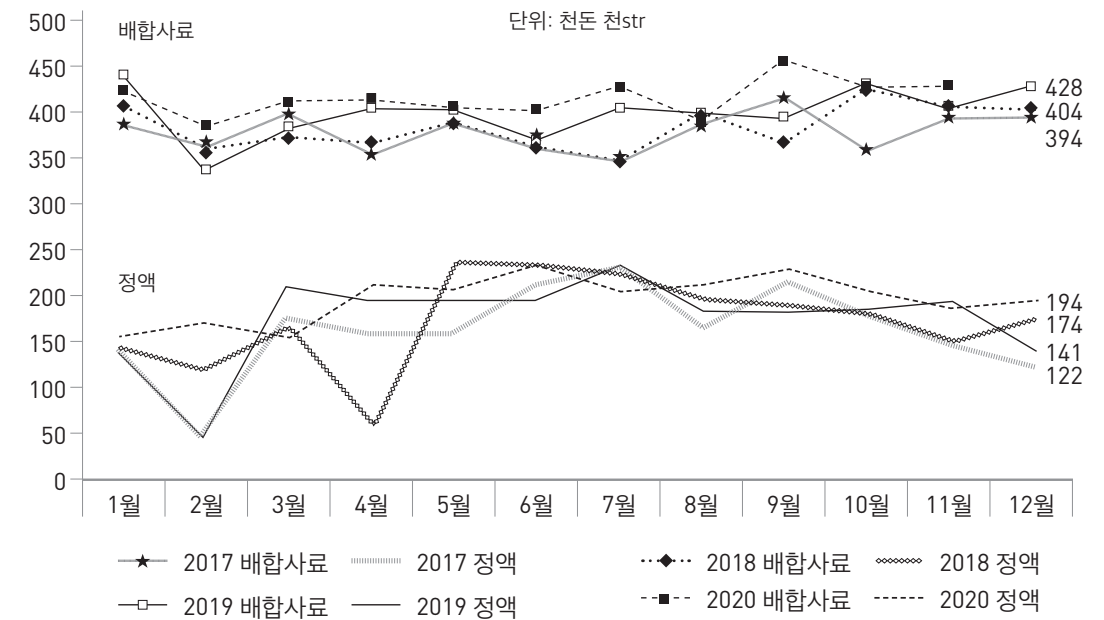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 0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0년 1~12월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12.6% 증가

- 1~1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572천톤으로 전년동기(4,363천톤) 대비 4.8% (209천톤)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12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2,359천str로 전년 동기간(2,095천str) 대비 12.6% (264천str) 증가
  - 이는 전년대비 가임암소 두수가 증가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

<그림 4>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17	388	363	398	355	389	373	349	389	416	358	395	394	4,566
	2018	407	358	374	368	389	364	348	401	366	428	407	404	4,616
	2019	439	341	383	403	403	365	404	397	392	430	406	428	4,791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	4,572
정액	2017	141	47	176	158	160	211	229	170	214	180	148	122	1,956
	2018	134	119	166	55	237	233	223	195	189	179	151	174	2,054
	2019	138	48	207	196	195	196	231	183	183	185	192	141	2,095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59

주 1)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됐으며,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불일치  
 2) 2020년 12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이관작업으로 인해 집계 지연(2021.1.28. 기준)  
 자료 : 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05 쇠고기 수입현황

### 2020년 1~1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7,157톤) 감소

○ 1~12월 쇠고기 수입량은 41만 9천톤으로 전년 동기간 42만 7천톤에 비해 1.7%(7,157톤)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냉장쇠고기는 11.9%(10,437톤) 증가했으나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5.2%, 17,594톤)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7,157톤) 감소

○ 1~12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양지, 갈비 부위가 각각 10.7%(5,327톤), 4.9%(2,828톤), 2.3%(3,774톤) 감소한 반면 앞다리와 기타 부위는 각각 2.0%(1,056톤), 3.7%(3,716톤)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0	245,086	203,006	42,080	99,264	23,446	25,464	36,353	60,559	90,569	121,790	32,727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19	1~11월	393,563	314,596	78,967	150,829	53,657	49,512	47,065	92,500	219,441	150,504
	12월	33,063	24,644	8,419	13,963	3,787	4,369	2,784	8,160	18,183	12,654
	누계(A)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020	1~11월	379,583	291,035	88,548	147,962	48,734	49,667	40,526	92,694	210,636	139,466
	12월	39,886	30,611	9,275	13,056	5,882	5,270	3,996	11,682	18,050	18,827
	누계(B)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증감율	전년동기(B/A)	△1.7	△5.2	11.9	△2.3	△4.9	2.0	△10.7	3.7	△3.8	△3.0

주 : 누계 A와 B는 당해년 11월까지의 수입물량 합계를 의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 06 수급 전망<sup>1</sup>

### 2021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한우 사육두수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3,149천두, 6월 3,319천두(2.9%↑), 9월 3,332천두 (2.9%↑), 12월 3,281천두(2.3%↑) 전망
  - 가임암소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513천두, 6월 1,538천두 (3.4%↑), 9월 1,586천두 (2.8%↑), 12월 1,588천두(2.5%↑) 전망
  - 1세 미만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932천두, 6월 938천두 (0.0%↑), 9월 948천두 (4.0%↑), 12월 952천두(1.1%↑) 전망

### 2021년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 당분간 한우 도축은 사육두수 증가로 2020년 대비 증가 전망
  - 2021년 1월~ 3월 19만 5천두, 4~6월 19만 4천두, 7~9월 23만 2천두, 10~12월 22만 2천두 도축 전망
- 2021년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은 하락 전망
  - 2021년 1~3월 도매가격은 18,000~19,000원, 4~6월 17,000원~18,000원, 7~9월 17,500~18,500원, 10~12월 17,000~18,000원 형성 전망

<sup>1</sup> KREI 축산관측 전망치 인용

# 번식 문제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엠디컨설팅

이번 호에는 번식농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번식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우 번식농가의 경쟁력은 1년 1산과 좋은 송아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번식성적의 저하는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 및 송아지 두당 생산비용의 증가와 함께 중장기 경영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번식문제에는 주로 ‘발정이 약하게 온다’, ‘수정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등이 있다.

## 컨설팅시 번식 문제파악 프로세스

우선 농가의 번식기록을 점검하여 공태일수, 분만간격, 발정주기, 문제우 현황등을 파악한다. 초음파진단을 통하여 번식장애우의 난소기능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자가 수정 농가의 경우 수정방법을 파악하고, 분만 전후 관리(사료급여방법, 분만전후 조치사항, 후산정체 및 난산유무)프로그램 점검을 실시한다. 때에 따라서는 혈중 비타민A 및 MPT 검사를 통하여 영양과 비타민 발란스등을 점검하여 농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프로그램 통한 번식상황 점검



번식장애우 초음파 난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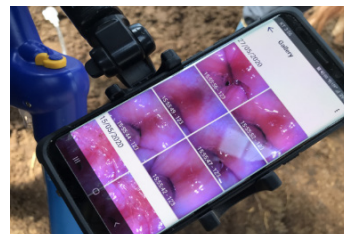
질병우 처치방안 교육



난산 현장 처방 교육



분만전후 번식우 혈중비타민 측정



번식장애우 현장진단

## 컨설팅시 번식문제 해결의 3가지 포인트



### 분만 후 난소기능의 회복에 의한 첫발정 및 자궁회복

첫발정의 지연이나 미약발정으로 인한 발정발견율에 저하는 1년 1산이라는 목표를 크게 방해한다.

#### <분만후의 난소기능 회복에 관여하는 요인>

- (1) 번식우의 BCS 상태, 에너지 발란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상황(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 (2) 난산, 이상분만, 후산정체 등의 분만사고시 질환의 유/무
- (3) 난소정지, 난소낭종, 자궁내막염 등의 번식질병
- (4) 포유중인 송아지

에너지 영양 수준이 번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는 첫째, 난소의 생식세포와 내분비계가 있다. 급여 에너지 수준은 특히 성선자극호르몬에 반응하는 내분비세포의 기능 및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양수준이 저영양이면, 황체분비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 감소로 인해 번식률이 저하된다. 둘째, 에너지 영양수준은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뇌하수체성선자극호르몬이 분비능력을 조절하며, 성선자극호르몬에 의하여 뇌하수체의 기능을 조절한다. 셋째, 호르몬의 혈중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양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스테로이드대사의 주기관인 간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혈중 호르몬농도를 감소시키지 못함으로써 번식능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는데, 결과적으로 난소의 다발정 등 이상을 초래한다.

이처럼 분만초기 에너지 부족은 난포발육을 더디게하여 발정 및 배란을 지연시키고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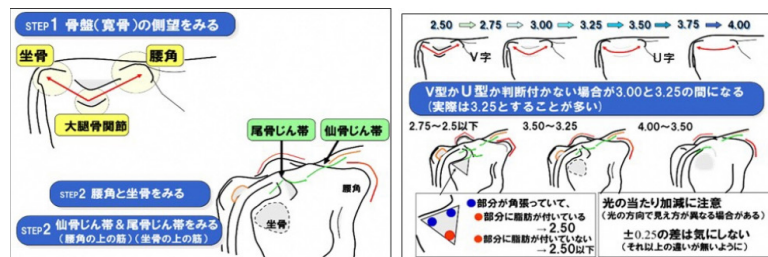
체발달을 저해하며 자궁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기 쉽다. 단백질이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반추위로부터 단백질 대사에 의해 생성된 유독성 부산물에 의한 난자, 정자 및 초기 수정란의 생존성 저하, 섭취 단백질과 에너지의 부적절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 이상, 대사이상에 의한 내분비 이상유발 등으로 번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료내 단백질량은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반추위내에서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요구량에 비하여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저에너지 사료를 섭취하면 혈중 프로게스테론 수준이 감소하여 번식효율도 저하된다.

분만전후 적절한 사료급여는 번식우 번식해결과 직결 된다고 할 수 있다. 분만전후 돌아 먹이기와 늘려먹이기 실시는 꼭 고려해보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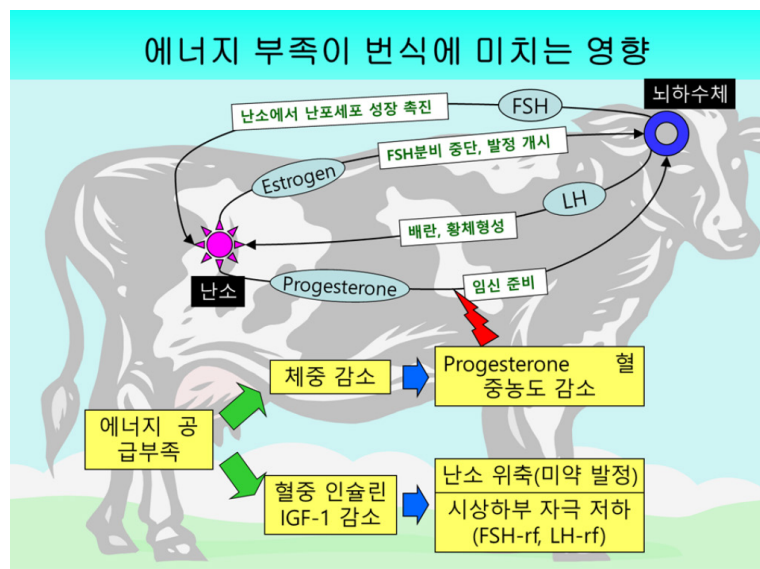
## 1단계

요각과 좌골의 곡선 판단 측방을 관찰하여 V형으로 보인다면 3.0이하, U형으로 보인다면 3.25 이상으로 분류



## 2단계

좌골과 미근부 부분의 살 찜정도 판단



## 자궁회복 이전의 발정 발견

발정발견을 향상은 번식문제의 8할 이상이 해결된다고 보아야할 만큼 중요하다. 발정발견 실패에 의한 수정기회의 감소는 공태일수 증가와 분만간격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발정징후가 약한 개체도 발정관찰을 자주하다보면 발정 징후를 감지하게 되는데. 발정 행동은 흥분상태, 보폭의 빨라짐, 우는 형태, 승가 및 승가의 허용 등의 행동을 한다. 또한 행동 이외의 특징으로써 발정점액의 유출, 외음부의 부음, 질점막의 충혈, 습윤 등이 나타난다.

발정행동을 나타내는 시간대는 오후 6시~정오(22%), 오후 6시~심야(25%), 심야~오전 6시(43%)라는 점에 따라서 발정관찰은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2번(아침, 저녁)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만일, 발정, 인공수정등의 날짜를 기록하여 두고 발정예정일을 사전에 체크하여 향후 발정 관찰을 용이하게 하거나 발정 관찰 보조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한다.

대부분 농가들은 발정 발견을 사조 앞쪽에서만 관찰을 대부분하고 있다. 자세히 보려면 소의 뒷쪽으로 돌아가서 꼬리에 점액이 묻어 있는지, 혈액이 붙어 있는지, 음부는 충혈되어 있는지 등을 관찰하는 습관을 꼭 붙이길 당부드린다. 이때 엉덩이에 혈액이 붙어 있다면 2일전에는 발정이 왔

## 발정후기에 외음부형태와 인공수정 적기



다는 증거이므로 2일 전부터 세어서 평균적으로 21일째가 발정예정일임을 체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18일째 또는 24일째에 발정이 오기도 하므로 매회 주기를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첫 중부일수나 수정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의 관찰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1) 분만후 30일부터 40일에서 무발정우의 원인검사
- (2) 분만후 60일 이상의 미수정우에 있어서 무발정 원인검사
- (3) 2회 이상 수정우의 저수태 원인검사

발정을 놓친 경우에는 발정 발견방법의 검토나 발정유도에 대한 방법을 도입해 수태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임신진단은 수정후 30일 전후에서(혈액검사 또는 초음파진단)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저수태우의 조기발견에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번식우 1년 1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급여사료, 소의 관찰, 성적기록, 질병대책, 환경정리, 더위대책 등의 농장관리가 그대로 번식성적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번식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번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꼼꼼한 기록관리와 함께 꾸준한 기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시간 내에 생산성의 변화를 느낄수 없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매일 작은 것을 한가지씩 실천 한다면, 어느순간 눈에 띄게 생산성이 향상 되어있을 것이다.

기고-1

##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개념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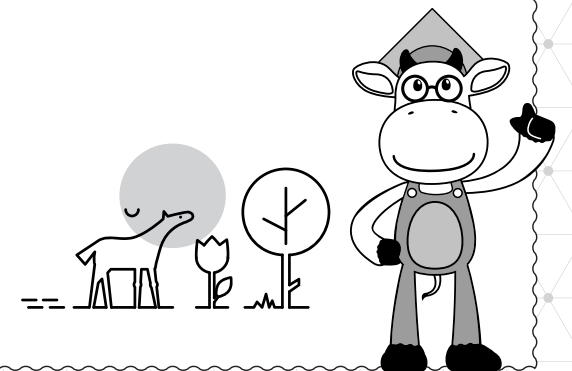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농업연구사 장선식(농학박사)

한우는 2007년에 정한 100대 민족 문화의 상징 중 하나로 농업생산액이 2018년 기준 4조8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중에서 미곡, 양돈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한다. 2019년 12월 도체등급 개정으로 최근 도체가격은 평균 kg당 2만 원 이상으로 두당 수취가격이 평균 1천만 원이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

는 38%인 소고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우 도체등급 판정기준에 근내지방 섬세도 추가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육질등급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데, 마블링을 양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입자가 고운 근내지방이 골고루 분포하는 질적인 면을 병행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마블링의 형태(섬세함 vs. 뭉침) 기준 도입이 진행 중에 있다. 근내지방 섬세도란 한우 등심 내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운 형태로 고르게 분포한 것을 말한다. 근내지방 섬세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근내지방



섬세도에 측정 및 사양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국립축산과학원, 충남대학교, 한경대학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우선 근내지방 섬세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등심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근내지방의 분포도를 측정하는 원리로서 등심근육에 있는 근내지방의 형태와 분포에 따라 면적이 넓은 몽친지방과 면적이 좁은 섬세지방을 비교하여 알고리즘의 표준을 설정하고, 근내지방 분포입자의 특성을 선별, 수직화하고, 입자수를 면적비로 나눈 격자 마블링면적비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한국형 근내지방 섬세지수를 개발하였다. 이어 등급제도 적용을 위한 기초단계로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을 위해 후대검정을 하고 있는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후대검정 24개월령 및 육종농가 후대검정축 30개월령 도축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근내지방 섬세도를 측정하여 보증종모우 선발에 참고

할 예정이다. 육질 1+등급 이상인 근내지방도 7~9 구간의 근내지방 섬세도에 따른 도체특성은 같은 근내지방도에서 낮은 섬세도일 경우 몽친지방의 비율이 높았고, 등지방두께가 두꺼웠고, 등심단면적이 넓었으며, 근내지방의 면적비율은 증가하였고, 도체중은 무거웠으며, 가열감량과 지방함량이 증가하여 수분은 감소하였다. 반면 섬세도가 높을수록 즉, 미세한 근내지방이 많을수록 가열감량이 적어 육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근내지방 섬세도를 높이기 위해 도체중, 등심면적 및 근내지방량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말고, 등지방두께를 출하기준으로 10mm 내외로 얇게 유지하면서 비육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육량등급이 C등급으로 갈수록 몽친지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고급육 사양체계에서 근내지방 섬세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양관리 기술은 1개월령 이

유 및 4개월령 거세구의 근내지방 섬세도가 높았다. 이유시기가 늦을수록 종료체중, 도체중 및 도체율은 높은 경향이었으나, 근내지방 섬세도가 1개월령 이유구에서 높았다. 이유시기를 현행 3개월령에서 1개월령으로 2개월 단축하면 근내지방 섬세도가 5.8% 개선되어 소 도체등급 제도에 적용할 경우 조수입이 두당 225천원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세는 7개월령 거세구의 도체중이 무겁고 도체율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근내지방 섬세도는 4개월령 거세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세시기를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령으로 3개월 단축시 근내지방 섬세도는 8.8% 개선되어 제도적용 시 309천원의 조수입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거세는 4개월령에 실시할 경우 요도의 발달이 충분치 않아 요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통상 농가에서 실시하는 3개월령 이유 및 7개월령 거세와 대비하

여 농후사료 급여수준을 낮추고 750kg 이하로 출하하여 근내지방 섬세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우 평균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근내지방도 9인 1++ 등급이며 미세마블링이 발달한 도체에 대한 중매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도체 kg당 경락가격이 3만원이 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근내지방 섬세도는 한우 명품화 전략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과도한 농후사료 급여를 지양하면서 도체당 100kg 가량 생산되는 불가식지방의 생성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지표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개량 및 사양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한우를 더욱 명품화 하는데 한우산업의 각 분야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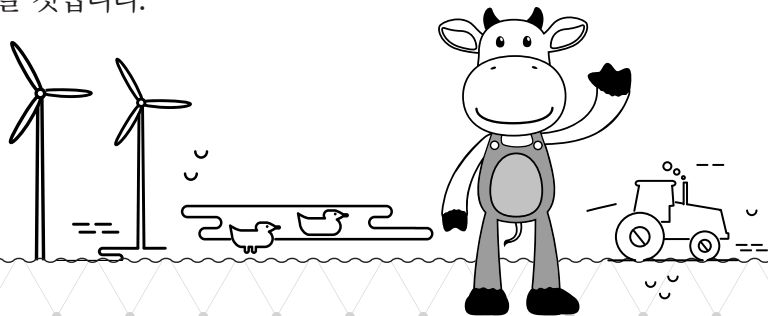
# 한우 미경산우의 비육시 사양관리



■ (주)발해축산약품 대표 권기찬

우리나라에서 미경산우의 비육은 주로 번식 후보로 키우다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비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같이 브랜드화된 곳은 거의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브랜드화를 하였지만, 미경산우 비육두수가 부족하여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경산우 비육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이 많지 않으며, 아는 것은 별로 없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미경산우의 비육시 장점은 투자자금의 소요가 적고,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서 소 값의 안정화와

농가 소득이 증가합니다. 미경산 비육 때문에 일본화우의 송아지 1마리 가격이 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최근 몇 년간 “와규 증식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자금지원을 통해 1산 후 비육을 권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10산 후 비육한 암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숙성방법 등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로 최근에 조금씩 마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프리미엄 쇠고기의 시장은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늘어갈 것입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의 시장을 가져갈 것입니다.



## 1. 밀소의 도입

### 1) 자가 육성의 경우

자가 생산한 송아지 육성시 사양관리에 따라 유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다들 EPD 값이 좋은 정액을 구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좋은 정액을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좋은 정액으로 수정하여 낳은 송아지가 미흡한 사양관리나 실수로 인해 허약 송아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미소의 뱃속에서 수정 후 21일이 경과하면 기관지부터 각종 장기가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부족 또는 영양소 불균형 시 장기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허약 송아지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임신 말기에 돌아 먹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체중 송아지 출산 또는 흥선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양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소는 생후 5개월까지의 키가 출하시의 키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송아지가 한달에 최고 5cm이상 클 수 있는 시기는 생후 5개월까지입니다. 분유 포육시 단백질 함량이 24%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입 불이기 사료도 단백질 함량이 24%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송아지 성장에는 성장호르몬인 GH, 글루카곤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이 관여하지만 그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IGF-1입니다. 이 IGF-1분비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며, 그 함량의 기준이 단백질 24% 이상입니다. 물론 단백질의 품질도 중요하므로 유장단백질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송아지의 소화나 면역물질인 IGF-1과 같은 성장호르몬 분비에 가장 좋습니다.

송아지의 조사료 급여는 섭취하는 배합사료 량의 7.5%(3개월령까지)의 화본과 건초를 3cm 정도로 세절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까지는



섭취하는 사료량의 13.5%의 조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사진의 화살표 부분인 흉추 극돌기부위의 털이 길게 자란 송아지는 에너지 섭취가 과잉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임

## 2) 외부 도입이 경우

비육 밀소의 구입은 주로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EPD 값이 A인 송아지가 높은 값에 낙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미침이 붙어있고, 흉추의 극돌기 주변에는 털이 짧은 송아지가 많으며, 심지어 생식기 주변의 털에 결석이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표시가 날까봐 아예 털을 가위로 잘라버린 송아지도 많이 보이고 있으며, 출

생 신고가 잘못되어 뿔 크기와 고환의 크기가 생후 14개월 정도인 송아지가 9~10개월령의 송아지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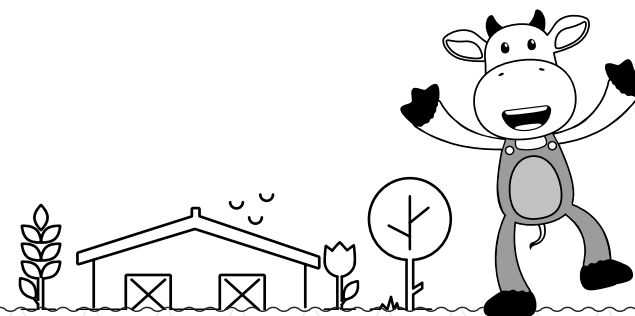
일본의 송아지 경매 시장에서는 출생 개월령 대비 키가 큰 송아지가 가장 높은 값에 낙찰되며, 그 다음이 EPD 값이 올 A인 송아지입니다. 키가 큰 송아지가 비싸게 사주면 번식농가도 키가 큰 송아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고, 살이 많이 찐 송아지가 비싸면 번식 농가도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키가 큰 송아지를 구입해야 하나면 종료시의 체중 때문이며, 키는 자라는 시기가 있어서 때를 놓치면 보상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월령 대비 키가 작고, 뿔이 길고, 미침이 생긴 송아지는 종료체중이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키가 큰 밀소를 구입해야 합니다. 미침이 크고, 흉추 극돌기 주변에 털이 짧은 송아지는 배합사료를 과잉 급여하여 내장지방

과 등심이 자랄 부위에 지방이 침착하여 등심이 커질 수가 없으며, 에너지의 과잉으로 체성숙이 조기에 멈추게 되고 반대로 성성숙이 빨라지게 됩니다. 사료 중심으로 육성기 사양관리를 하게 되면 비육전기에 입을 닫을 확률이 높으며, 등심이 평균 이하의 크기가 될 확률이 높고, 육량등급 C가 나올 확률이 높고 지육중량 및 종료체중이 작아져서 수익성이 감소합니다. 뿔과 뿔 사이의 간격이 넓은 송아지는 먹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콧날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송아지는 정육률이 적게 나오며, 가슴의 발달이 잘 안된 송아지는 흉선이 발달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신중하게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육성기의 사양관리

미경산우 비육에서 육성기의 배 통만들기는 조사료의 품질과 섭취량에 달려 있습니다. 농가교육을 다니면서 농가분들에게 배합사료를 몇 kg이나 급여하는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조사료를 몇 킬로그램 주는가를 물어보면 먹고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먹느냐고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합니다. 순수 섬유소 함량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양질의 조사료라고 하며, 육성기에는 일일 섭취량을 최소 4kg이상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7kg을 4개월 이상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질의 조사료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배가 아래로 처지게 되지만, 양질의 조사료로서 많은 양을 급여하면 배 통이 커지면서 둥글게 됩니다. 조사료의 급여량은 총 급여 TDN의 40% 이상을 조사료의 TDN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암소의 생리적 특성상 지방축적이 잘되므로 TDN이 높은 농후사료 위주로 육성기 사양을 하면 미칩이 생기고, 복강 내에 지방이 생기게 되며, 등심자리에 미리 지방이 침착하게 되어 등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가 과잉시 체성숙이 멈추고 성성숙이 되므로 종료체중이 작고, 지육중량도 적어집니다.

또한, 배통이 작으면 비육전기에 많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여 유전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개량을 위하여 어렵게 특정 정액을 구하여 송아지를 받아 놓고 사양관리를 잘못하여 능력을 뽑아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량보다 먼저 사양관리를 잘 하여 능력을 뽑아 먹을 수 있도록 한 후 개량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반추위를 잘 발달시켜 놓지 않으면 값비싼 사료를 급여해도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열심히 사료와 건

초를 먹고, 제1위 속의 미생물들이 열심히 분해하여 아세트산, 부틸산, 프로피온산을 만들어 놓아도 소의 제1위에 용모가 작고, 배 통이 작으면 먹을 수 있는 양이 작아지게 되고, 설령 먹었더라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제1위 내에 고이게 되어 제1위 과산증이라고 하는 대사성 질병에 걸려서 설사를 하고, 심하면 파라케라토시스에 걸려서 입을 닫게 되므로, 쇠고기 1kg생산에 들어가는 사료비가 옆집보다 많아지게 되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경산우 육성기에는 농후사료 급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적게 주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후사료의 급여량은 목표로 설정한 조사료 급여량(예를 들어 4kg 또는 7kg을 먹을 때까지 농후사료를 서서히 줄이다가 조사료 섭취 목표에 도달 후부터 목표로 한 조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의 사료를 늘려 주는 것)에 도달

후 1개월에 대략 500g정도씩 늘려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거세비육에서는 월 1kg씩 늘려가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미경산우 비육시 거세처럼 늘리면 종료체중이 630kg을 넘기가 힘들고, 지육중량은 380kg내외가 되며, 등심단면적은 88cm<sup>2</sup> 내외가 됩니다. 미경산우 비육에서는 송아지의 선택과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소 지육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경산우의 핵심 포인트는 ‘양질의 조사료를 몇 kg을 얼마동안 주었느냐’가 아닌 ‘얼마 동안 얼마만큼 먹었느냐’입니다. 육성기 6개월동안 농후사료를 일일 1.0kg만 급여하고, 조사료를 무제한 급여(약 7.0kg섭취)한 사양에서 등심단면적 평균 101cm<sup>2</sup>, 도체중 410kg 결과가 2018년 11월에 나왔습니다(미경산우 30두).

미경산우 육성 비육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의 보충급여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합사료는 육성비육이 단백질 함량이 16% 미만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 19% 정도를 권장합니다. 육성비육기에 단백질을 높이면 등심단면적이 커지고, 지육율이 높아지며, C등급 출현율이 감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본 논문 중에서 단백질을 19%로 하여 생후 21개월까지 급여한 시험(육량형계)에서 등심단면적과 자육율, 도체중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육색은 약간 올라갔지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양시험에서는 기존 배합사료에 대두박(단백질 44%)을 500g을 공급하면 등급출현율, 지육율, 도체중이 증가하고, C등급 출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단백질 급여시 점진적으로 늘려야 제1위 속의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농가에게는 하루 500g을 권장하며, 급여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 3. 비육기의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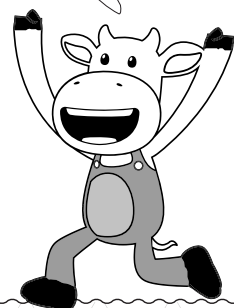
미경산우 비육에서 피크기의 사양 관리가 마블링을 좌우하므로 생후 18~22개월령에 피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크는 육질형인 경우 8.0kg~8.5kg 정도로 하고, 육량형의 소에게는 9.0~9.5kg 정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 소가 피크시에 사료섭취량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등급 출현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종료 체중도 줄어들게 되며, 출하시기도 늦춰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송아지 시기에 유두돌기가 발달되지 않았거나(화학적인 반추위 발달) 육성기 배 통 만들기(물리적인 반추위 발달)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 시면 됩니다. 피크를 지나면 1개월에 0.5kg씩 3개월간 농후사료를 줄이시고, 그 다음 달부터는 유지하면서 생후 24~25개월령에 초음파 육질 진단을 하여 출하시기와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사료는 농후사

료 피크때까지는 사각 벧짚의 경우는 1.5kg정도로 먹이고, 피크가 지난 후 부터는 사각 벧짚의 경우는 1.0~1.5kg 정도가 적절하며, 되새김지수(RV)가 낮은 조사료일 경우 급여량을 늘려야 사료섭취량이 줄지 않으므로 섭취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0년의 안동시에서 미경산우를 비육하여 출하한 성적표를 첨부 하오니 참고로 하셔서 더욱 좋은 성적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e is...권길찬 대표

가축인공수정사  
안동한우번식연구회 기술고문  
발해축산약품 대표이사



## 한 우 사 육 1 0 0 문 1 0 0 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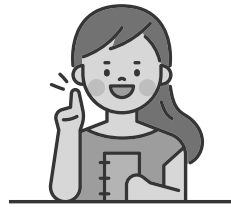


### Q \_ 외부에서 구입한 송아지의 입식초기 관리 요령은?

A \_ 외부에서 구입한 송아지는 보통 3~5개월령의 어린송아지로 환경변화에 따른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육장소 및 사료변화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나 반추위 운동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입식초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구입한 송아지는 가능한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수송을 피해야 하고 수송 시에도 한 차내에 너무 많은 두수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축사는 소독을 하고 바닥은 건조하게 깔짚을 갈아주고 안정감이 있도록 해주며 우사의 환기에 유의한다.
- ③ 도착 후 첫날은 물과 질 좋은 건초를 두당 0.5kg씩 급여하되 건초가 없을 때는 깨끗한 벧짚을 10cm 길이로 잘라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겨울철에는 도착 후 따뜻한 물을 급여하고 안정시키면서 스트레스 방지와 피로회복을 위하여 비타민 A, D, E제제 등 영양제를 주사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입식 전·후 항생제를 2~3일 간격으로 주사하며, 도착 일주일 이내에 종합백신(IBR, BVD)을 투여한다.
- ⑤ 배합사료는 체중의 0.5~1.0% 수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3일간 급여하고 3~4일 후부터는 분의 상태를 살피면서 0.5kg씩 증량해 주어 목표량까지 증가시킨다.
- ⑥ 사료적응은 2~3주간 점차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하면 입식 전 사료를 급여하고 서서히 변경사료로 전환함으로서 설사가 나지 않게 한다.
- ⑦ 인공유(어린송아지사료)를 급여하던 송아지는 인공유와 중송아지사료를 70 : 30으로 4~5일간 급여한 후 완전히 중송아지사료로 바꾸어 준다.
- ⑧ 식욕이 좋지 않은 송아지는 제1위 강화제나 소화제를 급여하도록 하며 이때 내부기생충 구제도 함께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 Q \_ 암송아지 육성기 사료급여 기준 및 사양관리 요점은?

**A \_** 암송아지의 육성기는 성장발육 특성으로 볼 때 생후 3~4개월령 전·후의 이유부터 12~13개월령 때의 번식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골격, 근육 및 생식기의 발달이 왕성하고, 특히 소의 일생에서 소화기관이나 번식기관이 최대로 성장하는 기간일 뿐 아니라,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 사료의 양과 질에 의하여 쉽게 성장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된 기초체형, 포유능



력 및 번식특성이 일생동안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간의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암송아지가 번식우로서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급여하여 적정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육성기는 골격 및 소화기관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되, 단백질, 광물질 및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육성우의 1일 영양소 요구량은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따라 다르고, 성장단계에 따라 증체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의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대한 평균의 개념으로 영양소 요구량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우 암송아지에 대한 구간별 체중과 일당증체량의 목표치를 결정한 후 한우 사양표준(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량에서 0.6kg 증체를 기준으로 하여 1일 영양소 요구량을 산출하면 되는데, 조사료를 벵조일로 할 경우에 농후사료는 체중 대비 1.4%가 적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번식우를 사육하는 단계에서는 기상여건 또는 사료의 품질 등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량보다 10~20% 증량하여 사료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 Q \_ 미경산우 비육방법은?

**A \_** 육성기(생후 6~12개월령)에는 사료 내 단백질 함량(15% 이상)이 높은 배합사료를 체중의 1.6% 정도 급여해 주고, 조사료는 양질의 건초를 자유 채식시키는 것



이 좋다.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하 시 육량과 육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체중에 따라 사료급여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 한 경우에는 배합사료 급여량을 10%정도 추가 급여하여 영양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생후 15개월령 이후 비육우로 전환하는 암소는 이전 배합사료 급여량에서 단계적으로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배합사료는 체중의 1.7%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한 달 가량 여유를 두고 목표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전까지 암소사료를 급여한 경우 비육전용사료와 벼짚으로 바꾸어 주는데, 급여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사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사료변화와 발정으로 인해 사료섭취량 및 증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양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비육후기(생후 22개월 이후) 배합사료 급여량은 최대 8.5kg/일 수준으로 제한하여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며, 체중 및 사료섭취량에 따라  $\pm 0.5\text{kg/일}$  수준에서 가감하면 된다. 하지만 미경산 암소의 장기비육을 위해서는 조사료 급여량을 일정 수준(1.5kg/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농후사료 급여량은 적정수준(최대 9.0kg/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30개월령 620~650kg에 도달하면 출하한다.

/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 한우농가가 만들어가는 한우마당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알고싶은 이야기 & 전하고 싶은 이야기



01



취재해주세요

필요한 정보  
궁금한 이야기

02



슬기로운 영농생활

꽃, 나무, 한우 등  
풍경 사진과 이야기

03



#일상 #소통

가족, 친구, 누구나  
공유하고픈 이야기

보내실 곳 : 025251053@daum.net



전국한우협회

## 슬기로운 한우생활 한우마당이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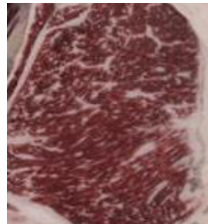
고를 때 고기색,  
근내지방 분포 확인...  
받는 즉시 냉장보관

### 설 한우선물 고르고, 보관할 때 꼭 ‘알아두소’

한우선물을 구입할 때는 고기색, 근내지방 분포,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한다.

고기색은 밝은 선홍색, 지방색은 유백색을 띄면서 윤기가 있는 고기를 고른다.

등심, 안심, 갈비 등은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돼 있는 고기가 감칠맛과 향이 좋다.



고르게 분포된 근내지방

한우 원산지와 육질등급, 구성 부위도 확인한다. 가능하면 냉장육으로 구입하고,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상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한다.

명절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때문에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은지, 포장용기가 파손될 위험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우는 온도 변화가 크면 육즙 손실이 많아지므로 받는 즉시 냉장 보관한다. 특히 한번 꺼내 둔 소고기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신선육을 진공 포장하면 암적색을 띄는데 이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개봉 뒤 30분정도 지나면 선홍색으로 돌아온다.

한우를 비교적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진공 포장 상태로 김치냉장고(0도~4도)에서 약 14~21일 저장해 자연 숙성시키거나 냉동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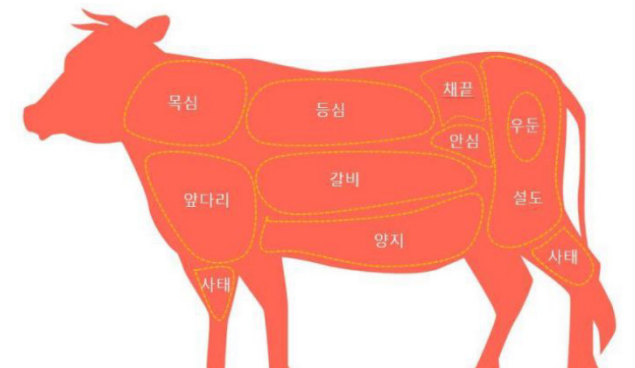
목심살, 앞다리살, 보첩살, 우둔살 등 저지방 부위를 숙성시키면 구이용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숙성된 고기는 근육 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부드럽고 연해진다.

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는 위생 랩으로 여러 겹 싸거나 지퍼 봉지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뺀다.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과 산화를 막아 고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한우 부위 가운데 안심, 등심, 채끝 등은 구이나 스테이크 요리에 알맞고, 목심과 앞다리는 불고기용, 사태와 양지는 국이나 탕으로 요리하기에 적당하다.

### 소고기 부위 및 부위별 조리법



#### < 소고기 부위 >

대분할 부위 명칭	안심	등심	채 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
소분할 부위 명칭	안심살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 살 살치살	채끝살	목심살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갈비덧살 부채덧개 살	우둔살 홍두깨살	보첩살 설깃살 설깃머리 살 도가니살 삼각살	양지머리 차돌박이 업진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치마살 앞치마살	앞사태 뒷사태 몽치사태 아롱사태 상박살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 < 소고기 대분할 부위별 요리 >



안심  
구이, 스테이크



등심  
구이, 스테이크, 전골



채끝  
구이, 불고기, 전골



목심  
불고기, 전골



앞다리  
육회, 불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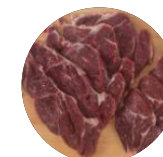
우둔  
산적, 장조림, 육포



설도  
산적, 장조림, 육포



양지  
전골



사태  
국, 탕



갈비  
구이, 찐, 탕



## 슬기로운 한우생활 한우마당이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국내·외 논문에 실린  
질병 6만여 건 분석...  
송아지·육성우  
설사병 많아

### 국내 사육 소 질병, 성장단계· 품종별로 다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의 원인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10년간(2010~2019) 발표된 국내·외 연구 논문 81편에 보고된 5만 9,504건의 질병 원인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이 소의 소화기 질병, 생식(번식) 질병, 진드기 매개 질병을 분석한 결과, 성장단계, 품종 등 분류에 따라 질병 원인체 검출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장단계에 따라 12개월령 미만 소(송아지, 육성우)는 어른소(성숙)보다 설사를 유발하는 소화기 질병이 많았다. 질병 원인체는 병원성 대장균(27.8%)과 구포자충(23.7%) 검출률이 높았다.

품종별로 보면 젖소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생식기 질병이 많았고, 한·육우는 소화기 질병이 많았다.

젖소에서 나온 생식기 질병 원인체는 네오스포라(22.6%), 콕시엘라 버네티(13.7%) 등이다.

한·육우에서 나온 소화기 질병 원인체는 병원성 대장균(18.9%), 코부바이러스(16.4%), 소 바이러스성 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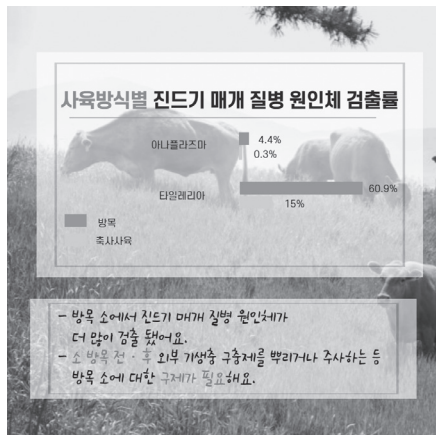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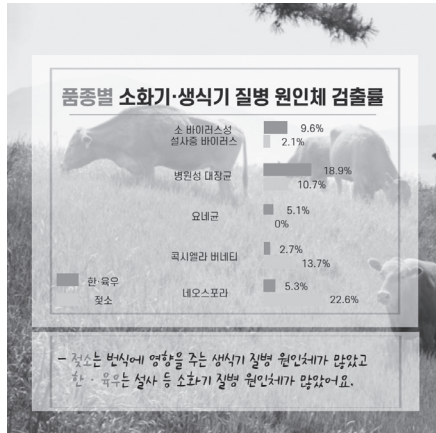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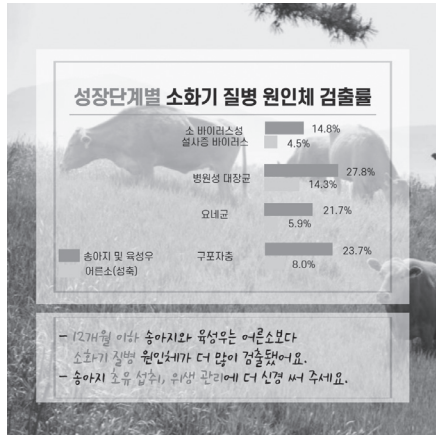
병 바이러스(9.6%) 등이다.

또한, 방목하는 소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보다 진드기 매개 질병 원인체인 타일레리아(60.9%), 아나플라즈마(4.4%)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결과가 치사율은 낮지만,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네병, 소 바이러스 설사병 등 주요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성장단계별·품종별 질병 원인체 현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소의 질병 원인체 발생 현황을 소 건강관리와 소모성 질병 연구에 활용한다면, 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슬기로운 한우생활

## 한우마당이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 국내 소 질병 원인체 분석

국내 소 성장단계, 품종, 사육방식에 따른 질병 원인체 검출률 비교

<표1> 성장단계에 따른 소 소화기 질병 원인체 검출률

질병 원인체	송아지 및 육성우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성축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 바이러스*	14.8%(406/2,741)	4.5%(59/1,305)
병원성 대장균*	27.8%(188/676)	14.3%(157/1,097)
요네균*	21.7%(13/60)	5.9%(355/6055)
구포자충*	23.7%(453/1,912)	8.0%(9/112)
로타바이러스	20.1%(141/702)	20.0%(1/5)

\* P-value < 0.05

<표2> 품종에 따른 소 소화기, 생식기 질병 원인체 검출률

질병 원인체	한·육우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젖소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 바이러스*	9.6%(328/3,416)	2.1%(12/561)
병원성 대장균*	18.9%(165/875)	10.7%(56/524)
요네균*	5.1%(656/12,862)	0%(0/247)
코부바이러스	16.4%(63/385)	24.1%(7/29)
콕시엘라 버네티*	2.8%(194/6,846)	13.7%(335/2,438)
네오스포라*	5.3%(271/5,111)	22.6%(423/1,868)

\* P-value < 0.05

<표3> 사육방식에 따른 소 진드기 매개 질병 원인체 검출률

질병 원인체	축사 사육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방목 (양성 마릿수/조사 마릿수)
아나플라즈마*	0.3%(1/343)	4.4%(14/320)
타일레리아*	15.0%(111/715)	60.9%(187/307)

\* P-value < 0.05

### 주요 질병 원인체

- 구포자충(Eimeria spp.): 소에서 콕시듐증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감염개체에서 주로 출혈을 동반한 심한 설사를 유발한다.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감염된 경우 발육장애와 생산 감소를 유발한다.
-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 바이러스(BVDV): 소 바이러스 설사병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소에서 감염 시 소화기 점막의 궤양과 설사, 호흡기병변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폐사한다.
-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소에서 장관에 감염하여 설사, 위축 폐사를 추축으로 한다.
- 아까바네바이러스(Akabane virus): 소에서 아까바네병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임신한 소에 감염하여 유사산 및 신동물의 관절만곡증 및 뇌수두증후군을 유발한다.
- 콕시엘라 버네티(Coxiella burnetii): 소에서 큐열을 유발하는 리케치아의 일종으로 소에서 유사산을 유발하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동 전염병이다.
- 네오스포라(Neospora spp.): 소에서 네오스포라병을 유발하며, 감염 시 유산 및 신경증상을 유발한다.
- 타일레리아(Theilria spp.): 소혈액에 기생하는 원충의 하나로 진드기에 의해 매개되며, 원기부족, 황달, 빈혈 유량 감소 등을 야기한다.
- 아나플라즈마(Anaplasma spp.): 소에서 아나플라즈마병을 유발하며, 소 적혈구에 감염하여 빈혈, 황달, 고열을 일으킨다.
- 요네균(Mycobacterium sub. paratuberculosis): 소에 감염하여 장염을 유발해 만성설사, 쇠약, 증체율 감소를 유발하는 질병원인체이다.

#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